

# 1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윤리학의 분류 파트에서 한 문항 (1번 문항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동양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서양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 ‘1번은 쉬우니까 윤리학의 분류 파트는 대충 공부해도 되겠지?’ 하는 식의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윤리학의 분류 문항 2점짜리를 틀리나, 분배 정의 문항 2점짜리를 틀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48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윤리학의 분류 파트가 어쨌든 다른 파트보다 심화 개념이나 변별 포인트 등의 차원에서 부담이 훨씬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라도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 동양 윤리 파트의 경우 특히 ‘제시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키워드만 빠르게 읽다가 제시문을 잘못 독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시문에 인과 예가 나온다고 반드시 유교 일까요? 도가도 인과 예를 말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맥락에서 언급할 뿐입니다. 원래 모든 생운 문항에서 제시문을 키워드로만 읽어 내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만, 동양 윤리 파트에서는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 만큼 제시문 오독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서양 윤리 파트의 경우 사상(사상가)별로 빈출되는 내용, 그리고 사상(사상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칸트의 입장에서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덕 윤리에서는 인간이 덕을 타고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편,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중시하는 반면, 덕 윤리에서는 도덕의 기준이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편적 도덕 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전 개념 포 파일널에서 만나보시죠!

# Step 1. 실천 개념 포 파이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라!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요약 노트까지!

## \* 윤리학의 분류

### 1. 윤리학의 특징

-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윤리학 : **당위(의무)**를 중시하는 **가치 개입적인** 학문
-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 **사실**을 중시하는 **가치 중립적인** 학문

### 2. 메타 윤리학의 역할 세 가지

- 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
- ②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 ③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 3.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구분하기

- 이론 규범 윤리학 :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규범 이론**을 제시
- 실천 윤리학 :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제시한 규범 이론을 응용하여 현실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01 [25-11-01]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도덕 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 ]

02 [25-11-01] 윤리학은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 ]

### 4. 기술 윤리학의 ‘인과적 서술’

기술 윤리학에서는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 규범, 관행, 실태를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도덕 규범, 관행, 실태만을 기술하지 않고, 그것들을 발생시킨 원인으로서의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 ‘언어’, ‘사상’, ‘종교’ 등에 대해서도 탐구하여 서술한다. 이를 두고 **기술 윤리학에서는 문화, 언어, 사상, 종교 등의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그 사회의 고유한 도덕 규범, 관행, 실태 등의 ‘결과’를 모두 밝혀 적는다고 해서 ‘인과적 서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래서 기술 윤리학은 필연적으로 문화학, 인류학, 사학 등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원인] 문화, 언어, 사상, 종교 → [결과] 도덕 규범, 관행, 실태

예)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효 중시) → ‘제사’라는 도덕 관습 발생

03 [20-11-01] ① 기술 윤리학 :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

04 [24-06-01]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

05 [21-09-01]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

‘가치 개입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즉 ‘가치 판단’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에서는 규범 이론 또는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메타 윤리학에서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없이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 윤리학에서는 도덕 관행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규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응용하여 낙태나 안락사 등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에 대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끔은 아무리 보아도 제시문의 윤리학이 이론 규범 윤리학인지 실천 윤리학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규범 윤리학’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 5. 기술 윤리학은 ‘경험과학적’ 학문

관찰과 실험 등에 의거하여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탐구 방식을 두고 ‘경험과학’이라고 한다. 기술 윤리학에서는 실제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시도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한다고 해도, ‘과학적’ 연구를 한다고 해도 모두 옳은 진술이 된다.

06 [20-09-01]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간과한다. ( )

07 [23-11-01]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 )

08 [25-11-01] ⑤ 기술 윤리학 :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

### 심화 윤리학의 관계

윤리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실천 윤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의 도덕 이론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도덕 원리를 정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메타 윤리학에서는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하고,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윤리학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09 [22-09-01] ②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 규범 윤리학을 필요로 한다. ( )

10 [22-09-01] ⑤ 이론 규범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

### 오늘의 오답 노트

#### 제시문과 선지의 “키워드”에 낚이지 말자!

오늘 윤리학의 분류 문제를 푸는데, 제시문에 ‘이론적 탐구’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당연히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메타 윤리학이었다! 생각해 보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둘 다 이론적 탐구를 강조하더라.** 다만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직접 탐구하고 정립하는 반면, 메타 윤리학은 도덕 규범의 논리적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을 묻는 선지에 ‘도덕적 관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길래 당연히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틀리고 보니, 선지의 완전한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도덕적 관행에 대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수행한다.” **바보야, 그러면 당연히 아니지. 기술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니까.**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만 하니까.

오늘 제시문과 선지를 키워드로만 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꼈다. 윤리학의 분류, 쉽다고 마냥 만만하게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제시문이든 선지든 반드시 꼼꼼하게 읽는 태도를 길러야겠다.

## \* 동양 윤리

따라서, 제시문에 ‘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요? 어떤 맥락에서 도와 덕을 논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잘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유교 사상가들 중에서도 순자는 독특하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해당 파트에서 말하는 유교의 본성론이란 유교의 일반적 관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교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공자, 맹자, 순자가 구분되어 출제되는 ‘직업 윤리’ 파트와 ‘예술 윤리’ 파트에서만 순자의 입장을 따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 1. 유교, 불교, 도가의 공통점

#### ① 도(道)와 덕(德)을 긍정함

유교, 불교, 도가 모두 ‘도’와 ‘덕’을 긍정한다. 물론 도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사상마다 다르다.

- 유교 :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 인간다움, 인륜(人倫)의 도, 도덕적인 삶
- 불교 :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올바른 중도(中道)의 수행법[八正道(팔정도)]
- 도가 : 자연의 법칙이자 천지만물의 원리

또한, 각 사상에서 생각하는 도를 따르는 것, 이것을 각 사상에서는 덕으로 규정한다. 즉 유교, 불교, 도가의 입장에서 진정한 덕이란 바로 ‘도를 따르는 것’이다.

01 [23-09-02] ② 장자·공자 : 이상적 인간은 시비(是非)를 판별하여 도(道)를 따라야 하는가? ( )

02 [25-09-16] ㄱ. 공자 : 충서(忠恕)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道)를 이루게 한다. ( )

03 [25-11-11]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道)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행위를 바꾸지 못하며,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 ]

04 [24-03-06] ① 장자·공자 :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道)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 ( )

05 [18-11-03] ⑤ 공자·노자 :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 ) (윤사)

#### ②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봄

유교, 불교, 도가 모두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물론 인간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사상마다 다르다.

- 유교 : 하늘이 내려준 순선하고 도덕적인 성품
- 불교 : 불성(佛性) = 부처의 마음,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 도가 : 자연적이고 소박한 성품

따라서 유교, 불교, 도가 모두 본성을 보전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반면 유교, 불교, 도가 모두 본성의 변화와 극복에는 반대한다.

06 [23-11-02] ⑤ 노자·석가모니 : 하늘이 부여한 순전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

07 [25-09-16] ㄷ. 노자 : 무위(無爲)의 삶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

08 [25-11-11] ⑤ 맹자·노자 :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곧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 )

09 [26-09-03] ④ 맹자 : 본성을 함양하고[養性]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

10 [20-03-06] ② 맹자 :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성[性]에 따라 행동하세요. ( )

11 [20-03-06] ③ 맹자 : 순선(純善)한 본성을 형성하여 도덕적인 선택을 하세요. ( )

12 [20-03-06] ⑤ 맹자 :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세요. ( )

13 [21-03-18] ① 불교 사상 :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

14 [21-10-09] ③ 장자 :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 )



### ③ 개인의 수양을 강조함

- 유교 : 경(敬)[거경(居敬)], 성(誠), 신(愼)[신독(愼獨)]
- 불교 : 삼학(三學)[계(戒), 정(靜), 혜(慧)], 팔정도(八正道)
- 도가 : 좌망(坐忘), 심재(心齋)

- 15 [26-06-09] ㄷ. 장자 : 모든 분별을 잊어서 잊되[坐忘] 참된 나를 되찾아야 한다. ( )
- 16 [21-09-02] ① 불교 사상 :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參禪)해야 한다. ( )
- 17 [21-09-02] ② 불교 사상 :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망(坐忘)해야 한다. ( )
- 18 [21-09-02] ③ 불교 사상 :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居敬)해야 한다. ( )
- 19 [21-09-02] ④ 유교 사상 :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愼獨)해야 한다. ( )
- 20 [21-09-02] ⑤ 유교 사상 : 도(道)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 심재(心齋)해야 한다. ( )
- 21 [25-06-20] ㉠ (불교 사상은) 팔정도(八正道)의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 )
- 22 [21-10-09] ⑤ 장자 :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가? ( )

### ④ 수양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유교 : 성인(聖人), 군자(君子), 선비, 대인(大人), 대장부(大丈夫)
- 불교 : 성인(聖人), 부처, 보살
- 도가 : 성인(聖人), 진인(真人), 신인(神人), 지인(至人), 천인(天人)

- 23 [21-09-02] 요즘 중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 보면, 이 본성은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체로,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 ]
- 24 [23-06-02]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른 것이 있고, 그르다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이 있다. 진인(真人)은 대립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대립을 넘어서 자연에 비추어 사유한다. [ ]
- 25 [23-09-02] 참된 사람[真人]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일을 도모하지도 않는다. … (중략)… 이로우[利]과 해로움[害]을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 [ ]
- 26 [23-09-02] 군자는 의로움[義]으로써 근본을 삼고, 예(禮)로써 실천하며, 공손한 몸가짐으로써 표현하고, 신의로써 일을 이룬다. …(중략)… 군자는 죽은 뒤에 자신의 이름[名]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 ]
- 27 [23-11-02] 성인(聖人)의 은혜가 만세에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다.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며,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다. [ ]
- 28 [25-11-11]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道)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행위를 바꾸지 못하며,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 ]
- 29 [25-11-11] 예(禮)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알팍해진 결과이며 혼란의 원인이다. 선부르게 내다보는 것은 도가 꾸며진 것이자 어리석음의 단초이다. 그러니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며 알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 ]

‘삼학’과 ‘삼독’은 다릅니다. 삼학은 불교의 세 가지 수행법(계, 정, 혜)이고, 삼독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번뇌의 세 가지 원인(탐, 진, 치)으로, 제거의 대상입니다.

도가는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므로 수양 역시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에서도 수양을 긍정합니다.** 다만 그 수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을 축적하고 공부하는 유교식 수양과는 다소 다른, 마음을 비우고 분별적 지식을 잊으며 인위적인 관념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는 깨달음을 통한 해탈과 열반의 경지이므로 불교에서 제시하는 부처나 보살은 결국 깨달음을 통해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무명(無明)과 집착으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윤회의 굴레를 돌고 있는 일반 사람을 두고는 중생(衆生)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이여’ 같은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 오늘의 오답 노트

#### 제시문과 선지의 “키워드”에 낚이지 말자!

‘윤리학의 분류’ 파트에서 제시문을 키워드만 읽다가 낚여서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동양 윤리’ 파트에서도 무심코 그렇게 하다가 문제를 또 틀려 버렸다. ‘군자’, ‘선비’, ‘대장부’ 같은 키워드만 보고 당연히 유교 제시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가였던 경우가 많았다!

반드시 기억하자. **군자, 선비, 대장부, 인의예지, 예의, 현자 같은 유교의 키워드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 제시문이 반드시 유교의 제시문이라는 보장은 없다.** 유교의 키워드가 등장했다라도, 해당 키워드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교의 키워드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유교이겠지만, 유교의 키워드를 부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도가일 수도 있는 것이다.

## 2. 유교의 ‘인(仁)’

유교에서 말하는 인(仁)이란 ‘타인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자 ‘내면적 도덕성’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되는 ‘인간다움’**이다. 유교에 따르면 ‘인’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선한 본성의 핵심이자,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교의 ‘인’은 존비(尊卑)와 친소(親疏), 즉 사람의 귀천과 나와 가까운 정도에 대한 분별을 전제로 하는 **차별적인 사랑[別愛(別애)]**이다. 그런데 공자에 따르면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나의 가족, 즉 나의 부모, 그 다음이 형제자매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인 효(孝)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인 제(悌)**는 ‘인’의 근본이자 출발점이 된다.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충(忠)**과 **서(恕)**가 있다.

- 충 : 나의 마음에 충실하여, 거짓되는 부분 없이 진심을 다하는 것
- 서 : 역지사지(내가 하고 싶으면 남부터 하게 해 주고, 내가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30 [22-11-02] ⑤ 공자 : 인(仁)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 )

31 [24-06-02] ② 맹자 : 서(恕)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仁)을 이룰 수 있다. ( )

32 [26-06-04] ① 공자 :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해야 한다. ( )

33 [24-07-06] ① 맹자 : 인의는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서 사람을 사랍답게 하는 것이다. ( )

## 3. 불교의 ‘인연생기설(연기설)’

—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

-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인 실체는 없음**  
→ 따라서 **자타불이(自他不二), 자비(慈悲)의 정신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함**
-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음**  
→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됨**

34 [23-06-02] ① 석가모니 :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임을 알아야 한다. ( )

35 [23-06-02] ② 석가모니 :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 )

36 [23-11-02] ③ 석가모니 :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 )

37 [23-11-02] ④ 석가모니 :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 ( )

38 [24-09-11] ㄹ. 노자·석가모니 :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 )

39 [24-11-06] ④ 석가모니 :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 )

자타불이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대할 때나 자신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기설에 따르면 결국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남이 존재하기 때문이니까요. 또한 **자비의 정신**이란 만물에 대한 **평등한 사랑의 정신**을 말합니다.

한편 연기설에서 도출되는 두 가지 결론, 즉 **‘독립적인 실체는 없음’**과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음’**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연기설의 예외, 즉 세상의 존재와 현상 중 연기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 4. 도가 사상

### ① 도(道) : 자연의 원리이자 천지만물의 근원

- 형태 X 목적 X 의도 X 언어로 규정 X 감각으로 인식 X 지식으로 축적 X
- 질서 O 작용 O

- 40 [24-07-06] ③ 노자 : 도는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을 낳는다. ( )
- 41 [21-09-05] ③ 노자 : 도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언어로 규정할 수는 있다. ( ) (윤사)
- 42 [26-06-12] ㄴ, 노자 : 만물의 근원인 도는 언어로 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 ) (윤사)
- 43 [22-07-01] ③ 장자 : 오감(五感)으로 파악한 도(道)의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 (윤사)

### ② 무위(無爲)

도가에서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 무위하라는 것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무위하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예컨대 자연의 흐름에 부합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도 된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는 온갖 인위적인 행위, 예를 들면 **문명과 문화의 발달, 부와 명예의 추구, 현자(賢者) 숭상, 인의예지(仁義禮智) · 예의(禮義) · 인륜(人倫) 같은 인위적인 규범의 강조** 등은 도가의 입장에서 **지양의 대상이 된다**.

- 44 [23-11-02] ② 노자 :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
- 45 [26-06-04] ⑤ 노자 :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피 예(禮)를 완성해야 한다. ( )
- 46 [26-09-03] ① 노자 : 오륜(五倫)의 도를 행하여 도덕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 )

### ③ 소요유(逍遙遊) : 절대 자유의 경지

도가에서는 일체의 구별, 분별, 차별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모든 구별과 분별과 차별은 자연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세운 기준, 즉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도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신이 어떤 인위적인 관념과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고 한없이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 즉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를 두고 장자는 **소요유(逍遙遊)**라는 말로 표현한다.

- 47 [22-11-02] ④ 노자 : 시비선악(是非善惡)을 구분하여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 )
- 48 [23-09-02] ⑤ 장자 : 이상적 인간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을 따르는 사람인가? ( )
- 49 [21-03-18] ④ 도가 사상 : 본성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 )
- 50 [24-09-18] ㄱ, 장자 : 심재(心齋)로써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 ( ) (윤사)

도가에 따르면 도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즉 **도는 목적 없이 그저 자연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道法自然(도법자연)]**. 이처럼 도에는 목적이 없다는 질서가 존재하므로, 도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도는 ‘무목적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도는 분명히 작용합니다**. 도가에 따르면 모든 것은 되돌아갑니다. 깨끗했던 것이 더러워지고,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는 다시 돌아가는 작용, 즉 되돌아감[反]의 작용을 합니다**.

도가에서는 가치 분별을 지양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본다는 이유로, 도가에서 제시하는 자유의 경지 역시 상대적일 거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에서 추구하는 자유의 경지는 때에 따라 자유롭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상대적’ 자유의 경지가 아니라 분명히 ‘절대적’ 자유의 경지입니다. 그 이유는 소요유란 모든 인위적인 기준을 다 벗어난 상태로서,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항상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저 개인의 단순한 총합에 불과할 뿐이며, 개인이 모여 있는 것을 달리 이름한 것이라고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반면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한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예를 들어 30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능력은 단순히 30명의 능력을 모두 합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명의 능력을 합친 것에 더해 그 이상으로 공동체만이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도 분명히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의 이익, 즉 '공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공동체주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에서는 공동체란 개인의 총합일 뿐이며, 공익 역시 사익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도 결국에는 개인주의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은 모두 준칙입니다. 예컨대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겠다'도 준칙이고, '피곤한 날에는 옆에 앉은 친구를 한 대씩 때려야지'도 준칙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도덕 법칙이 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지요. 후자는 보편성 정칙과 인간 존엄성 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옆에 앉은 친구를 때리는 것은 차마 보편화될 수도, 또한 그 친구를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아니지요?

## \* 서양 윤리

### 1. 공리주의·칸트 VS 덕 윤리

#### ① 개인주의(자유주의)? 공동체주의?

- 공리주의, 칸트 : **개인주의(자유주의)**
- 덕 윤리 : **공동체주의**

- 01 [20-11-05] ⑤ 벤담 :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 )
- 02 [21-11-07] ③ (매킨타이어가 벤담에게)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03 [24-06-03] ㄴ. 매킨타이어 :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 )

#### ② 보편적 도덕 원리?

- 공리주의, 칸트 : **보편적 도덕 원리 긍정**
- 덕 윤리 : **보편적 도덕 원리 부정**(도덕의 기준이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음)

- 04 [21-09-03] ⑤ (매킨타이어가 칸트에게) 도덕이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05 [22-09-03] ⑤ 칸트·벤담 :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한다. ( )
- 06 [24-06-03] ㄱ. 매킨타이어 : 공동체의 선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더 중시해야 한다. ( )
- 07 [24-06-03] ㄴ. 매킨타이어 :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 )
- 08 [25-09-11] ⑤ 벤담 :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유념하세요. ( )

### 2. 공리주의 VS 칸트 VS 덕 윤리

- 공리주의 : 도덕 판단 시 **행위의 결과 중시**
- 칸트 : 도덕 판단 시 **행위의 동기 중시**
- 매킨타이어 : 도덕 판단 시 **개별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품성 중시**

- 09 [22-09-03] ① 칸트 :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 ( )
- 10 [24-06-03] ㄷ. 매킨타이어 : 도덕 판단을 할 때 행위자보다 행위 자체를 중시해야 한다. ( )

### 3. 칸트의 의무론

#### ① 준칙과 도덕 법칙의 관계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두고 '준칙(격률)'이라고 한다. 준칙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이때 어떤 준칙이 도덕적인 준칙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바로 '보편성 정칙'과 '인간 존엄성 정칙'이다.

- **보편성 정칙** : 해당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가?
- **인간 존엄성 정칙** : 인간을 한낱 수단이 아닌,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가?

이 두 가지 정칙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즉 **도덕 법칙보다 준칙이 더 큰 범위이며, 준칙의 일부가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이다**.

- 11 [19-03-11] ① 칸트는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 12 [20-09-11] ④ 칸트 :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윤사)
- 13 [24-11-17] ② 칸트 :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 ) (윤사)
- 14 [22-11-16] ④ 칸트 :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 (윤사)
- 15 [20-03-07] ⑤ 칸트 : 자신의 준칙을 따르는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 (윤사)





칸트는 감정을 동기로 일어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지요. 즉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없는지는 칸트와 매킨타이어의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 5. 매킨타이어의 현대 덕 윤리

- ① 도덕 판단 시 개별 행위 자체보다, **행위를 한 행위자의 품성**이 더 중요함
- ② 공동체주의 :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인간관계, 공동체의 특수한 맥락이 중요함**
- ③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되는 행위야말로 도덕적이며**, 덕 있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할 법한 행위를 해야 함

28 [25-06-04] ② 매킨타이어 :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 )

29 [25-06-04] ③ 매킨타이어 :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도구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 )

### 심화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의 공통점 & 둘을 구분하는 방법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 ① **행위자의 품성을 중시함**
- ② **덕 = 후천적 형성의 대상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X)**

둘을 구분하는 방법 ; 제시문에 ‘지성적 덕’, ‘중용’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가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 없이 그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덕을 강조하고 있거나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 매킨타이어이다.

30 [23-11-04] 도덕적 덕은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 ]

31 [25-06-04]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한다. 핵심적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된 선에 접근할 수 없다. [ ]

32 [21-06-12] ① 매킨타이어 :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

33 [23-03-16] ②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품성적 덕을 길러야 한다. ( )

## 2 생명과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삶과 죽음의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생명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독해형 문항, 또는 자연과 윤리 mini 문항이 출제됩니다.)
- 사랑과 성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 삶과 죽음의 윤리 파트의 경우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파트는 킬러 파트가 아니라 준킬러 파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준킬러 파트의 경우 배우는 내용의 깊이 자체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사상가들이 다른 파트보다 조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준킬러 파트에서는 보통 단독 사상가 문항은 거의 출제되지 않으며, 사상가들 간의 비교를 요구하는 문항, 그리고 사상가들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이용한 함정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웬만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실전 개념 포 파이널에 다 정리해 두었으니, 이번에도 꼼꼼히 학습합시다!
- 생명 윤리 파트의 경우 독해형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고, 자연과 윤리 mini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므로, 일단 해당 파트에서 우리가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코헨은 자연과 윤리 파트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코헨의 종차별주의 사상 정도는 이 파트에서 배워 갑시다.)
- 사랑과 성 윤리 파트에서는 프롬이 제시하는 참된 사랑의 특징을 확실하게 익혀 두고, 배려 윤리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둡시다. 덧붙이자면, 가족 윤리 문항이 수능에 마지막으로 출제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 모의평가에 갑자기 아주 오랜만에 니부어 문항이 출제되었듯, 가족 윤리 문항 역시 올해 수능에 기습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매우 깊은 수준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역시나 기본 개념,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에 출제되었던 내용 정도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어서 수능장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당황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그러면,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실전 개념 포 파이널에서 만나보시죠!

# Step 1. 실전 개념 포 파이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라!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오답 노트까지!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 즉 자연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은 도가만의 입장이 아니라 유교와 도가의 공통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 \* 삶과 죽음의 윤리

### 1. 유교 VS 도가

#### — 죽음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

- 도가 : **그러므로** 죽음은 슬퍼할 일도 X 애도의 대상도 X
- 유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마땅히 슬퍼할 일 O 상례와 애도의 대상 O

- 01 [26-09-12] ① 공자 :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 ( )
- 02 [20-06-03] ④ 장자 : 죽음은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만 하는 슬픈 일이다. ( )
- 03 [25-06-11] ① 장자 :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 )
- 04 [23-09-06] ① 유교 사상 :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회피하는 것이다. ( )
- 05 [21-09-16] ② 도가 사상 :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이다. ( )
- 06 [20-09-18] ⑤ 장자 :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 한다. ( )
- 07 [21-11-16] ④ 유교 사상, 도가 사상 :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 )
- 08 [24-11-17] ④ 장자 :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 ( )
- 09 [22-09-11] ③ 장자 : 자연스러운 과정인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 ( )

### 2. 불교 VS 도가

#### ①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음 (삶과 죽음에 대한 구별 · 분별 · 차별 X)

- 불교 : 삶 = 죽음 = 고통
- 도가 : 삶 = 죽음 = 기(氣)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 ② 삶과 죽음은 순환하고 반복함

- 불교 :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의 삶과 죽음은 윤회에 의해 무한 반복
- 도가 : 소멸하지 않는 기(氣)는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며 삶과 죽음을 순환시킴

- 10 [26-06-16] ⑤ 장자 · 석가모니 :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에 고통[苦]이 아니다. ( )
- 11 [25-06-11] ② 장자 :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 )
- 12 [23-09-06] ④ 불교 사상 :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生死一如]로 여겨야 한다. ( )
- 13 [22-11-06] 삶은 죽음과 함께 걷고 죽음은 삶에서 비롯하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사람의 삶은 기(氣)가 모인 것이어서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니라. 좋아하면 멋진 것이라 하고 싫어하면 역겨운 것이라 하지만, 역겨운 것이 멋진 것이 되고 멋진 것이 다시 역겨운 것이 되네. 따라서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기로 통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일세. 성인(聖人)은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네. [ ]
- 14 [25-09-02] ③ 장자 : 삶과 죽음은 기(氣)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는 않는다. ( )
- 15 [25-09-02] ④ 장자 : 도(道)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 )
- 16 [24-04-19] ㄱ. 장자 : 삶은 좋아함으로 죽음은 싫어함으로 분별된다. ( )
- 17 [22-03-16] ㄷ. 장자 : 생사를 분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도에 따라야 한다. ( )
- 18 [20-03-02] ⑤ 석가모니 · 장자 : 삶과 죽음은 분별해야 하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다. ( )
- 19 [22-04-14] ③ 장자 : 삶과 죽음은 분별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 )
- 20 [19-03-05] ③ 장자는 석가모니와 달리 삶과 죽음은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 ( )



### 3. 불교 VS 플라톤

— **죽음 이후의 세계(내세)가 존재하며, 현세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침**

- 불교 : 현생에서 선업(善業)을 많이 쌓으면 내생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음
- 플라톤 : 현생의 철학적 수련이 내세에서 참된 진리(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을 도움

- [21] [21-03-16] ③ 플라톤 : 현실 세계에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 [22] [20-04-08] ③ 불교 사상 : 윤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업(業)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 )
- [23] [20-03-02] ② 석가모니 : 인간은 자신의 업(業)과 무관하게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 ( )

### 4. 에피쿠로스 VS 플라톤

—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에피쿠로스 : 죽음으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소멸하게 됨
- 플라톤 : 죽음으로 인간의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하여 이데아계로 감

- [24] [21-06-16] ③ 플라톤 :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 )
- [25] [24-10-17] ㄱ. 플라톤 : 철학자는 영혼과 육체의 불멸성을 깨달아야 한다. ( )
- [26] [24-04-19] ㄴ. 에피쿠로스 : 죽음 이후에 소멸하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체이다. ( )
- [27] [23-10-06] ⑤ 에피쿠로스 · 플라톤 : 영혼의 불멸성을 파악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 ( )
- [28] [22-07-10] ㄱ. 플라톤 :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소멸된다. ( )

### 5. 죽음과 인간의 구성 요소

— **죽음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흩어지는 현상**

- 불교 : 죽음은 일시적으로 결합하고 있던 오온(五蘊)이 흩어지는 현상
- 도가 : 죽음은 인간을 이루고 있던 기(氣)가 흩어지는 현상
- 에피쿠로스 : 죽음은 인간을 이루고 있던 원자가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현상

- [29] [25-06-11] ⑤ 장자와 플라톤 :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 )
- [30] [19-03-05]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며 삶이란 죽음을 뒤따르는 것이다. 사람의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게 된다. [ ]
- [31] [25-11-04]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氣)를 얻었고,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게 되었으며, 형체가 변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여 죽음에 이른다. [ ]
- [32] [22-07-10] ㄴ. 에피쿠로스 : 죽음은 원자가 흩어지는 것으로서 감각의 상실을 의미한다. ( )
- [33] [22-10-03] 영혼은 그것을 보호해 주는 몸이 분해되면, 영혼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도 흩어져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 ]
- [34] [23-04-08] ㄴ. 석가모니 · 에피쿠로스 : 죽음으로 인해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해체된다. ( )

#### 심화 에피쿠로스의 키워드

유희 제시문의 사상가가 에피쿠로스임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피쿠로스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 ② 현자(賢者)는 긴 삶보다는 즐거운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한다.

- [35] [21-06-16]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 ]

불교에서는 현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꽤 괜찮은 내생을, 반면 악업을 많이 쌓으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내생을 영위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 따르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통 모두 전생에서 우리가 행한 업에 대한 결과, 즉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팠든 삶은 이미 그 자체로 고통이므로, 아무리 선업을 많이 쌓아서 내생의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아예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여 삶과 죽음의 굴레인 윤회를 끊어버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사조에 속하는 사상가로, 이후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에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즐거움, 쾌락, 마음의 평온이 곧 선(善)이라고 주장합니다.



## \* 사랑과 성 윤리

### 1. 프롬의 참된 사랑

- ① 삶처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일종의 기술
- ② (이끌리는) 수동적 감정 X (참여하는) 능동적 활동 O
- ③ 받는 것 < 주는 것
- ④ 생명을 희생하는 것 X 생명을 주는 것 O
- ⑤ 복종, 지배, 소유, 사고파는 것 X
- ⑥ 상대방을 나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 ⑦ 보호, 존경, 책임, 이해의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
  - 보호 :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
  - 존경(존중) :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
  - 책임 :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 이해(지식) : 상대방의 독특한 개성을 알고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 01 [26-09-06] ③ 프롬 :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02 [24-09-12] ① 프롬 :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영속적 감정이다. ( )
- 03 [24-09-12] ③ 프롬 : 참된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 )
- 04 [24-09-12] ④ 프롬 : 참된 사랑은 수동적 감정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온다. ( )
- 05 [24-09-12] ⑤ 프롬 : 참된 사랑은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다. ( )
- 06 [23-11-17] ② 프롬 : 사랑은 미성숙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에 근거해야 한다. ( )
- 07 [23-11-17] ③ 프롬 :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 )
- 08 [24-07-05] ② 프롬 :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생동감을 고양한다. ( )
- 09 [22-03-03] ㄱ. 프롬 :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 )
- 10 [22-03-03] ㄴ. 프롬 : 사랑은 주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 )
- 11 [20-07-09] ⑤ 프롬 : 사랑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
- 12 [19-10-20] ㄱ. 프롬 :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긍정하는 합일을 지향한다. ( )
- 13 [19-10-20] ㄴ. 프롬 :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빠지는 것이다. ( )
- 14 [19-10-20]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각자의 통합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입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 행위는 활동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 ]

생명을 희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같은 것이지요. 반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생명력과 생동감을 고양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죽 살아있는 느낌, 생명의 에너지를 준다는 말의 비유적인 표현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참된 사랑이 상대방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이 될 수는 없으나, 서로의 생동감을 고양시켜 주는 것, 즉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효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입신양명이란 효를 완성시키는 덕목일 뿐, 효를 완전히 끝내는 지점이 아닙니다. 유교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효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천륜은 하늘(天) 자를 써서, 하늘이 부여한,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반면 인륜은 사람 인(人) 자를 써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지금 잘 보면 형제자매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도 해당하고 수평적 관계에도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수직적 양상을 띠지만(첫째, 둘째, 막내 등), 외부적으로는 부모의 다 같은 자식이라는 점에서 수평적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덧붙이자면, 모든 가족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권면(간언)**, 즉 상대방의 옳지 않은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충고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신의(信義)**를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 4. 유교의 가족 윤리

### ① 부모 자식 관계

- 부자자효(父慈子孝): 부모는 자식을 자애(慈愛)롭게 사랑,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
- 효의 ‘시작’: 불감훼상(弗敢毀傷), 효의 ‘완성’: 입신양명(立身揚名)

- 31 [20-09-04] ③ 유교 사상: (효는) 인(仁)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 )
- 32 [20-09-04] ④ 유교 사상: (효는) 도덕적 수행을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에서 시작된다. ( )
- 33 [20-09-04] ⑤ 유교 사상: (효는) 상호 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 )
- 34 [21-03-13] ① 유교 사상: 자식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전함으로써 효가 완성된다. ( )

### ② 형제자매 관계

- 형우제공(兄友弟恭): 형은 동생을 우애롭게 사랑, 동생은 형을 공경
- 동기간(同氣間): 한 부모로부터 같은 기운을 물려받은 관계
- 수족지의(手足之義): 인간의 손과 발처럼 협력이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

### ③ 부부 관계

- 부부상경(夫婦相敬): 부부는 서로 공경해야 함
- 상경여빈(相敬如賓): 부부는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해야 함
-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함

- 35 [21-09-05] 나. 유교 사상: 부부는 손님을 대하듯이 서로 공경해야 한다. ( )
- 36 [21-09-05] 라. 유교 사상: 부부의 도리는 각자의 역할에 분별이 없어야 바르게 된다. ( )
- 37 [18-10-11] 나. 유교 사상: ㉠(부부 관계)은 상호 공경하면서도 분별[別]이 요구되는 관계이다. ( )

## 심화 천륜과 인륜, 종적 관계와 횡적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 관계가 각각 천륜과 인륜 중, 그리고 종적 관계와 횡적 관계 중 무엇에 속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① **천륜(天倫):** 부모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인륜(人倫):** 부부 관계

- ② **종적(수직적) 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횡적(수평적)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 관계

- 38 [21-03-13] ③ 유교 사상: 형제는 상하 관계 속에서 장유유서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 )
- 39 [21-03-13] ⑤ 유교 사상: 부부는 인륜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해야 한다. ( )
- 40 [18-10-11] 나. 유교 사상: ㉠(부부 관계)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천륜(天倫)의 관계이다. ( )
- 41 [18-10-11] 라. 유교 사상: ㉠(부부 관계), ㉡(형제자매 관계)은 권면(勸勉)과 신의에 힘써야 하는 관계이다. ( )
- 42 [20-03-16] ② 유교 사상: (부부 관계)는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천륜 관계이다. ( )
- 43 [20-03-16] ③ 유교 사상: (부부 관계)는 가장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관계이다. ( )



# 3 사회와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분배 정의 파트, 형벌 파트,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는 각각 한 문항씩, 총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 나머지 직업 윤리 파트, 니부어 파트, 국가 윤리 파트에서 총 두 문항 또는 세 문항이 출제될 것입니다.

##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 분배 정의 파트와 시민 불복종 파트의 경우 롤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두 파트에서 롤스의 사상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롤스의 정의론 전반을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분배 정의 파트에서는 롤스와 함께 노직이,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는 롤스와 함께 싱어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 형벌 파트의 경우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이 등장하는데, 각 사상가가 의무론, 공리주의, 사회 계약론 중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누가 사형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모든 사상가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무엇이 있는지, 각 사상가별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 인지를 중심으로 공부합시다.
- 이번 9월 모의평가에 갑작스럽게 직업 윤리 문항 대신 니부어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파트 모두 꼼꼼히 공부해 둡시다.
- 국가 윤리 파트의 경우, 아무래도 어렵게 나온다면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연권’, ‘주권’, 입법권과 행정권의 주체 등의 개념에 대한 각 사상가의 입장을 혼동하지 말고 잘 알아두되,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이 아니라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이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동양 사상가들(맹자, 한비자, 묵자)의 관점이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시다. 거듭 말하지만, 실제 수능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모두 꼼꼼히 공부해 둡시다.



# Step 1. 실전 개념 포 파이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라!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오답 노트까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교 사상가들 모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직업을 분담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선호보다는 개인의 덕(德), 능력, 적성, 소질 등에 따라 직업이 분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하지만 키워드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상가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 \* 직업 윤리

### 1. 유교 사상가들(공자, 맹자, 순자)의 공통점

- ① 통치자와 백성 간의 분업 체계 및 상호 보완성 긍정
- ② 직업 선택의 자유 부정
- ③ 통치자와 백성 모두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함 (직분에 맞는 덕 발휘 필요)
- ④ 통치자와 백성 모두 다른 직분에까지 능통할 필요는 없음

- 01 [21-09-12] ① 공자 :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 ( )
- 02 [21-09-12] ② 공자 :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
- 03 [21-09-12] ③ 순자 :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
- 04 [21-09-12] ⑤ 공자 · 순자 :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 )
- 05 [25-06-16] ㄹ. 순자 :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부를 쌓아야 한다. ( )
- 06 [22-09-06] ③ 순자 :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선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
- 07 [22-09-06] ⑤ 맹자 · 순자 : 사회적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 08 [20-09-08] ③ 맹자 :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 )
- 09 [20-09-08] ⑤ 순자 · 맹자 :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
- 10 [24-09-14] ㄱ. 순자 :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한다. ( )
- 11 [24-09-14] ㄹ. 순자 :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 )
- 12 [21-11-09] ㄱ. 공자 :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 )
- 13 [21-11-09] ㄴ. 공자 :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 )
- 14 [21-11-09] ㄹ. 공자 :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 )
- 15 [26-06-02] ㄷ. 순자 : 도(道)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 ( )
- 16 [26-06-02] ㄹ. 맹자 · 순자 :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 )

### 심화 유교 사상가들(공자, 맹자, 순자)의 제시문 구분하기

- ① 정명(正名),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 공자
- ② 대인(大人)과 소인(小人), 노심자(勞心者)와 노력자(勞力者), 항산(恒産)과 항심(恒心), 왕도(王道) 정치 → 맹자
- ③ 고대 선왕이 제정한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禮)(예의), 도(道)에 정통 or 사물에 정통, 후천적 직업관 → 순자

- 17 [21-09-12]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 ]
- 18 [22-09-06] 왕공(王公)과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禮義)를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서인(庶人)으로 귀속시킨다. 서인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아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있다면 사대부로 귀속시킨다. [ ]
- 19 [25-09-13]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에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연후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 ]
- 20 [20-09-08]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 ]



## 2. 칼뱅의 ‘직업적 성공’

- 직업적 성공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징표 O 증표 O
- 직업적 성공이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인 것이 X  
직업적 성공에 대한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X

### 오늘의 오답 노트

#### 칼뱅의 “직업적 성공”만 나오면 자꾸 헛갈렸던 이유!

칼뱅의 입장에서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증표일 뿐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게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헛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을 때마다 느낌에 의존해서 풀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겠다.

칼뱅의 구원 예정설에 따르면, **구원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직업적 성공을 통해 구원 여부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구원이 직업적 성공에 대한 보상이냐는 선지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내가 직업적 성공을 하든지 여부에 따라 구원 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칼뱅의 ‘직업적 성공’이 선지에 나오면, 그 표현에 따르면 직업적 성공 여부에 따라 구원 여부가 다르게 되든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주목해서 풀면 되겠다!

21 [25-11-08] ㄱ. 칼뱅: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다. ( )

22 [19-04-16] ② 칼뱅: 직업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 )

23 [22-07-19] ② 칼뱅: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 )

### 심화 플라톤의 제시문 구분하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직업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플라톤이다. 물론 마르크스를 제외한 모든 사상가가 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특히 분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사상가가 바로 플라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 계층’을 언급하고 있으면 그 사상가는 무조건 플라톤이다. 더 나아가, 철학자가 통치를 맡아야 한다는 철인정치를 주장하고 있어도 플라톤이다.

24 [24-09-14]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서로의 일에 간섭한다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 ]

### 심화 칼뱅과 베버의 제시문 구분하기

칼뱅의 직업관을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과 연관지어 연구한 사람이 바로 베버이다. 따라서 칼뱅 같은 종교 개혁가를 이르는 ‘프로테스탄트(청교도)’라는 표현이 제시문에 등장할 경우 해당 제시문의 사상가는 베버이다. 한편 그러한 표현 없이 그냥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에 대해 설파하고 있으면 칼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25-11-08] 신은 우리를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 양식을 소명이라 이름 붙였다. [ ]

26 [19-11-13]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시에 노동 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의 노동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 ]

## \* 분배 정의

###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기본)

- 일반적 정의 : 공익을 증진하는 공동체의 법을 준수하는 것(준법)
- 특수적 정의 { **분배적 정의** : 개인의 가치에 따라 **기하학적 비례**  
**교정적(시정적) 정의** : 이익과 손해만을 고려하여 **산술적 비례**

- 01 [18-11-09] ㄱ. 아리스토텔레스 :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 ( )
- 02 [19-03-14] ㄹ. 아리스토텔레스 :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므로) 옳지 않다. ( )
- 03 [16-07-13] ㄹ. 아리스토텔레스 : 분배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균등을 회복하는 것이다. ( )

###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심화)

- ① **균등 분배 반대** : 개인의 가치에 비례하여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동등하지 않은 몫을**’
- 오히려 균등 분배 시(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몫을 줄 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② **교정적 정의** : **상호 간의 교섭**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교정하는 정의
-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며, 이익과 손해에만 주목**

- 04 [19-03-14] ㄴ. 아리스토텔레스 : (사람들에게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
- 05 [16-07-13] ㄱ. 아리스토텔레스 : 시민은 법 앞에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 )

### 3. 롤스의 ‘원초적 입장’

- ①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상호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 ②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 시기심, 동정심이 없다.**
- ③ **무지의 베일** 때문에 **자신의 특수한 여건에 대해 알지 못하며,**
- ④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여건에 유리한 원칙을 제안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공정한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된다.
- 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지만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데 필요한 **경제학 · 심리학 등 일반 학문에 대한 교양 지식은 가지고 있으며,**
- ⑥ 더 나아가 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원초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모두가 준수할 것이라는 ‘**정의감**’에 기반한 **상호 신뢰와,**
- ⑦ 특정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식’** 역시 가지고 있다.
- ⑧ 이와 같은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 문화적 원시 상태 또는 실제 현실 상황이 아니라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 가상 상황이며,**
- ⑨ 무지의 베일은 롤스의 분배 정의에 적용되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 06 [26-06-19] 다. 롤스 :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 )
- 07 [26-09-11] ① 롤스 :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 )
- 08 [26-09-11] ③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다. ( )
- 09 [26-09-11] ⑤ 롤스 :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 )
- 10 [24-04-09] ②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 )
- 11 [25-09-10] 나.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 )
- 12 [25-11-15] 가. 롤스 :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이다. ( )
- 13 [25-11-15] 나.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 )
- 14 [23-09-15] 다. 롤스 : 정의 원칙 수립 시 당사자 간 합의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가? ( )
- 15 [23-04-12] ②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합의한다. ( )
- 16 [22-07-07] 라.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모두의 동의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가? ( )
- 17 [23-07-10] 라.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는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가? ( )
- 18 [22-10-10] 가. 롤스 :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선택되는가? ( )
- 19 [20-04-14] 나. 롤스 :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가? ( )
- 20 [20-04-14] 다. 롤스 :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된 것인가? ( )
- 21 [24-10-12] 나. 롤스 :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는 공정한가? ( )

#### 4. 롤스의 ‘정의의 원칙’

- 사회의 기본 구조와 각종 법, 제도, 정책에 적용되어 실현되며, 현실에서 상호 협동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공정한 분배 원칙으로서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가 됨
-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기본적인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 ②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주요 직위나 직책에 대한 접근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 ③ **차등의 원칙** :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않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음

- 22 [25-06-15] 나. 롤스 :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 )
- 23 [21-06-07] ① 롤스 :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 ( )
- 24 [21-07-10] 다. 롤스 : 명령할 수 있는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하는가? ( )
- 25 [22-03-09] 다. 롤스 :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
- 26 [23-04-12] ① 롤스 :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다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한다. ( )

#### 5. 롤스의 ‘기본적 자유’

- ①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가치**이므로,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 복지 정책, 공익 증진 등 **자유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없다.**
- ② 그러나 **기본적 자유끼리 상충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도 기본적 자유의 체계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③ 기본적 자유는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 덜 광범위하게 보장될 수 있으며, 기본적 자유를 덜 보장 받는 쪽이 동의하는 경우 불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다.
- ④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는 **분명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

- 27 [21-11-10] 라. 롤스 :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
- 28 [23-11-09] 나. 롤스 :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
- 29 [22-06-07] ② 롤스 :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
- 30 [22-11-10] 다. 롤스 :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 )
- 31 [23-10-10] 나. 롤스 :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는가? ( )
- 32 [24-10-12] 다. 롤스 : 기본적 자유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

롤스의 정의의 세 원칙 사이에는, 원칙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를 대비하여 일종의 우선순위, 즉 ‘**축차적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마지막으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다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에서 금지됩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롤스는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때 ‘배타적’이라는 것은 ‘타’인을 ‘배’제한다, 즉 나의 독자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의의 세 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나의 재산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나는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배 정의 파트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 중에서도 '재산 소유의 자유(사유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민 불복종 파트로 가면, 조금 더 다양하게 기본적 자유의 종류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다 암기해 두시다.

## 심화 기본적 자유의 목록

롤스가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자유(투표권, 공직 진출권), 인신의 자유(신체의 권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사유 재산권).

- 33 [24-06-08] 나. 롤스: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 평등해야 한다. ( )
- 34 [22-09-10] 르. 롤스: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가? ( )
- 35 [20-11-10] ② 롤스: 사유 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
- 36 [21-09-18] 그. 롤스: 사유 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
- 37 [20-07-10] 드. 롤스: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재산 소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 )

## 5. 롤스의 '차등의 원칙'

—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않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

→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이지만, 최소 수혜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원칙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나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이다. 즉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를 비롯하여, 더 많은 운을 타고난 최대 수혜자까지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상호 협력 체계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주는(호혜적인) 원칙**이다.

### ② ... (이익을) 주지 않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즉 차등의 원칙은 절대로 불평등을 금지하거나 제거하려는 원칙이 아니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에서 제시하는 조건, 즉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불평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더 많은 운을 타고난 자가 최소 수혜자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용인되지 않게 되며, **평등 분배가 허용되게 된다**.

- 38 [26-06-19] 르. 롤스: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 )
- 39 [23-11-09] 그. 롤스: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
- 40 [22-11-10] 나. 롤스: 차등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 )
- 41 [24-09-15] 나. 롤스: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 )
- 42 [24-09-15] 드. 롤스: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가? ( )
- 43 [24-04-09] ① 롤스: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 )
- 44 [19-04-19] 드. 롤스: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 )
- 45 [20-07-10] 나. 롤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는가? ( )

## 6. 노직의 ‘정의의 원칙’

- ① **최초 취득의 원칙** :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즉, **타인이 누리 오던 혜택을 크게 침범함으로써 타인의 처지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한**), 개인의 노동을 투입하여 자연물을 최초 취득한 자에게는 소유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
- ② **이전(양도)의 원칙** : 소유권자가 있는 소유물이 자발적으로(자유롭게) 이전(양도)된다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 역시 함께 이전(양도)된다는 원칙
- ③ **교정(시정)의 원칙** : 최초 취득의 원칙 혹은 이전의 원칙에 어긋나는 현실 상황의 부정의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교정을 인정하는 보완적인 원칙

- 46 [26-06-19] 나. 노직 :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 )
- 47 [22-09-10] 다. 노직 : 최소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 )
- 48 [22-06-07] ③ 노직 :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49 [22-06-07] ⑤ 롤스 · 노직 :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 준다. ( )
- 50 [20-09-17] ③ 노직 :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51 [20-11-10] ③ 노직 :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
- 52 [24-11-14] 다. 노직 :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 )
- 53 [25-09-10] 라. 노직 :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 )
- 54 [23-03-09] 나. 노직 :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 )
- 55 [23-10-05] 가. 노직 :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
- 56 [23-04-12] ③ 노직 : 부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 )

우리는 노직의 정의관이 절차적 정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직에 따르면, 예컨대 **최초 취득이 정당했어도 이전이 부당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되며, 마찬가지로 이전이 정당했어도 최초 취득이 부당했다면 역시나 교정의 대상이 됩니다.**

## 7. ‘정형적 분배 원리’와 ‘역사적 원리’

- ① **정형적 분배 원리** : 분배가 어떤 가치의 서열에 따라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는 분배 원리  
→ **필연적으로** 국가의 재분배를 요구 → **필연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
- ② **역사적 원리** : 분배에 있어서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분배 원리
- ③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 비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분배 원리**

- 57 [23-06-09] 다. 노직 :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
- 58 [20-06-15] 가. 노직 : 정형화된 재화 분배 원칙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되는가? ( )
- 59 [21-09-18] 나. 노직 :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 )
- 60 [21-06-07] ③ 노직 :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 )
- 61 [21-06-07] ⑤ 노직 :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 )
- 62 [21-06-07] ④ 노직 :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 )
- 63 [24-04-09] ③ 노직 :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의 결과는 정의롭다. ( )
- 64 [23-03-09] 가. 노직 :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 ( )
- 65 [22-10-10] 라. 노직 : 정형적 분배 원칙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는가? ( )

우선,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정형적입니다. 한편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취득과 이전의 절차’라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이기도 합니다.

### **심화**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분배 원리가 있다?!

정형적 분배 원리는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고 역사적 원리는 분배 결과보다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므로, 두 원리는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분배 원리가 존재할 수 있다.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독립적 기준이 역사적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역사적이면서도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덕적 공과(功過)에 따른 분배 원리’의 경우, 분배 결과가 ‘도덕적 공과’의 서열에 따라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정형적이지만, 동시에 도덕적 공과를 측정할 때 개인이 공과를 쌓아 온 역사적 과정을 보므로, 역사적이기도 하다.

- 66 [24-06-08] 가. 노직 :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 ( )



이처럼 노직은 국가의 다양한 역할을 긍정하기 때문에, 과세 정책 역시 긍정합니다. 즉 노직이 모든 과세 정책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개념입니다. 물론 노직은 최소 수혜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에 사용될 세금 징수에는 반대하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 정책에는 물론 찬성합니다.

## 8. 노직의 ‘최소 국가’

-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
-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 **최소 국가의 역할 세 가지**
  - ① **분배 과정에 개입하여 부정의를 교정**
  - ② **치안 유지 및 국가 안보**
  - ③ **공공재 건설**

67 [25-06-15] 다. 노직 :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선 안 된다. ( )

68 [24-09-15] 그. 노직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 )

69 [24-09-15] 르. 노직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 )

70 [24-11-14] 나. 노직 :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 )

71 [26-06-19] 그. 노직 :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 )

## 9.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

- ① **절차적 정의 :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 분배 결과는 무조건 공정함**
- ②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
- ③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교정을 인정함
- ④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
- ⑤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천부적 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
- ⑥ **운의 임의적이고 불균등한 분포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봄**
- ⑦ **개인의 재산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며,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
- ⑧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면서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함**

72 [20-09-17] ⑤ 노직 · 롤스 :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 ( )

73 [24-06-08] 르. 노직 · 롤스 :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 )

74 [22-11-10] 르. 노직 · 롤스 :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 )

75 [20-11-10] ① 롤스 :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 )

76 [23-09-15] 그. 롤스 · 노직 :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 )

77 [20-06-15] 다. 롤스 :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는가? ( )

78 [24-11-14] 르. 롤스 · 노직 : 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 권리를 지닌다. ( )

79 [25-09-10] 그. 롤스 · 노직 :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 )

80 [25-11-15] 르. 롤스 · 노직 :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 )

81 [21-09-18] 다. 노직 :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 )

82 [21-09-18] 르. 롤스 · 노직 :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 )

83 [21-11-10] 그. 롤스 :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 ( )

84 [21-04-09] ② 롤스 :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이익은 공정한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

85 [23-10-05] 나. 롤스 :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이므로 부정의한가? ( )

## 9. 왈처의 분배 정의

- ①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각 가치의 고유한 영역 간의 경계 중시**
- 각 사회적 가치는 그 가치에 맞는 분배 기준, 절차, 주체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
  - 각 가치의 고유한 영역 간의 경계가 훼손되는 **전제(지배)** 현상을 비판함
  - 고유한 분배 기준, 절차에 따라 분배된 결과로 소수가 특정 가치를 독점하는 현상은 인정함
- ② 공동체주의
- 동일한 사회적 가치도 상이한 사회에서는 상이한 사회적 의미를 가짐
  - **사회적 가치의 분배 기준은 공동체의 특수성과 역사적 맥락을 반영해야 함**

- 86 [20-04-14] ㄱ. 왈처 :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 )
- 87 [20-03-05] ② (왈처가 보기에 노직과 롤스는)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 경계가 사라져야 함을 간과한다. ( )
- 88 [21-03-02] ④ (롤스가 보기에 왈처는)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89 [24-07-15] ① 왈처 : 사회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 )
- 90 [24-07-15] ③ (왈처가 보기에 노직은) 특정 영역의 가치를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91 [20-11-07] ③ 왈처 :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 ) (윤사)
- 92 [20-11-07] ④ 왈처 :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 (윤사)

## 10.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 ① 노동의 본질이 실현되고 자발적 노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 ② 노동이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생활 욕구가 되는 사회
- ③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 분업이 사라지고, 각자가 자유롭게 노동하는 사회
- ④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
- ⑤ **3無 사회 : 국가(정부), 계급, 사유 재산권(사적 소유권)이 없는 사회**

- 93 [22-09-10] ㄱ. 마르크스 :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 )
- 94 [22-07-07] ㄱ. 마르크스 : 계급 간 협력을 통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해야 하는가? ( )
- 95 [20-11-07] ① 마르크스 :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 ) (윤사)
- 96 [20-11-07] ② 마르크스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 ) (윤사)

각 가치의 고유한 영역 간의 경계가 훼손되는 전제(지배) 현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돈은 돈에 맞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치권력은 정치권력에 맞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데, 부자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정치권력까지 (비리를 통해)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돈’만의 고유한 영역과, ‘정치권력’만의 고유한 영역 간의 경계가 훼손되는 현상으로, 전제(지배)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왈처의 입장에서 **‘전제(지배)’ 현상과 ‘독점’ 현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왈처는 공동체주의 사상가로서 사회적 가치의 분배 기준에 공동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적을 비롯한 특수한 여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배제한 채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롤스의 가상 상황으로서의 ‘원초적 입장’ 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공산 사회가 국가(정부)가 없다고 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가(정부)가 없다는 것이 곧 사회도 없다, 또는 공동체나 연합체도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연합체)는 존재하지만, 그 공동체를 통치하는 별도의 통치 기관으로서의 국가(정부)가 없을 뿐입니다.

## \* 형벌

가끔 “그러면 벤담은 혼자 사회 계약론 사상가가 아닌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벤담은 형벌 파트에서 혼자 사회 계약론 사상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벤담은 사회 계약론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사실도 헛갈리지 말고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나중 가서 “벤담도 사회 계약론 사상가 아니었어요?”라고 한다면, 벤담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 날지도 모릅니다(그럴 수만 있다면요).

칸트의 입장에서 처벌 = 응분의 보복입니다.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응분의 보복을 받을 행위를 의욕한 것이다’ —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 1. 기본 입장

- 칸트 : 응보주의 + 사회 계약론
- 루소 : 사회 계약론
- 베카리아 : 사회 계약론 + 공리주의
- 벤담 : 공리주의

### 2. 칸트의 형벌론

- ① 형벌 : 공적 정의 = 응보(응분의 보복) =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 존중 위한 수단  
외부의 선(ex. 범죄 예방, 국가 안보, 공익 증진) 위한 수단은 X
  - ② 범죄자 : ‘처벌’이 아니라 ‘처벌 받을 행위’, 즉 ‘범죄 행위’를 의욕해서 처벌받는 것임
- 01 [23-06-10] ③ (칸트가 보기에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02 [22-09-19] ⑤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임을 간과한다. ( )
- 03 [20-09-19] ⑤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은 공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04 [24-06-09] ①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
- 05 [25-09-15] ㄷ. 칸트 :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
- 06 [25-09-15] ㄹ. 칸트 :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 ( )
- 07 [26-09-05] ③ 칸트 :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한다. ( )
- 08 [23-07-15] ⑤ 칸트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을 의욕했으므로 시행해야 한다. ( )
- 09 [23-03-04] ②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간과한다. ( )
- 10 [24-07-10] ㄱ. 칸트 : 사형 집행은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11 [24-03-17] ㄹ. 칸트 :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한다. ( )

### 3. 칸트 VS 루소

#### — 공통점

- ① 사형 찬성 :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정당한 권한을 가짐
- ② 살인범은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 — 차이점

- ① 살인범은 여전히 존엄한 인격체인가?
  - 칸트 : 살인범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생득적 인격성을 보유한 존엄한 인격체임
  - 루소 : 살인범은 더 이상 존엄한 도덕적 인격체가 아님
- ② 사형의 목적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 시민의 생명 보전에 있는가?
  - 칸트 : 사형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 같은 외부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X
  - 루소 : 사형의 목적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 시민의 생명 보전과 안전에 있음
- ③ 사형 외에도 살인범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존재하는가?
  - 칸트 :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보았을 때 오직 사형만이 살인죄에 상응하는 형벌임
  - 루소 : 살인범에 대해 사형 말고 추방형을 부과할 수도 있음

- 12 [21-11-19] ② (베카리아가 보기에 칸트와 루소는) 형벌은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13 [21-11-19] ④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사형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14 [21-11-19] ⑤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함을 간과한다. ( )
- 15 [21-09-13] ① 루소 :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 )
- 16 [21-09-13] ③ 칸트 :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 )
- 17 [25-06-19] ②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과한다. ( )
- 18 [22-09-19] ④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
- 19 [20-09-19] ①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 )
- 20 [20-09-19] ②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살인자도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 )
- 21 [24-06-09] ②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
- 22 [24-06-09] ③ (베카리아가 보기에 칸트와 루소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23 [26-06-14] ④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
- 24 [26-06-14] ⑤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25 [20-06-19] L. 칸트 :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형벌이 존재한다. ( )
- 26 [24-11-11] C. 루소 :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 )
- 27 [22-06-19] ②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 )
- 28 [23-11-19] ③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29 [23-11-19] ④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30 [23-09-12] ① 칸트 : 살인범은 살인을 의욕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 )
- 31 [23-07-15] ③ 칸트 :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득적 인격성이 상실된다. ( )
- 32 [21-03-15] ② 칸트 :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 )
- 33 [23-04-10] C. 루소 : 살인범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 )

## 심화 칸트의 사회 계약론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인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지체적 인격’과 ‘현상체적 인격’이 그것이다. 예지체적 인격이 완전하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인격적 측면이라면, 현상체적 인격은 불완전하고 감정과 욕구에 흔들릴 수 있는 인격적 측면이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입법자는 신성해야 하므로, 사회 계약의 과정, 즉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살인범에 대한 사형에 동의할 수 있는 현상체적 인격이 아니라 예지체적 인격뿐이다. 한편, 현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완전한 예지체적 인격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상체적 인격이다. 따라서 칸트의 사회 계약론에서는 사형에 동의하는 주체와 사형을 받는 주체가 동일하지 않게 되며, ‘형벌에 대한 범죄자의 동의’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34 [26-06-14] ③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
- 35 [22-06-19] ④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
- 36 [21-09-13]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 ]

#### 4. 루소 VS 베카리아

— 공통점 : 사회 계약론

- ① 국가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 과정에서 동의한 형벌만을 집행할 수 있음
- ② 형벌의 정당성은 개인들의 동의에서 찾을 수 있음
- ③ 계약과 형벌의 목적은 사회 방위와 시민들의 생명 보호에 있음
- ④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

— 차이점

- ① 개인들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생명권을 양도하고 사형에 동의하였는가?

- 루소 : 개인들은 살인범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사형에 동의하였음
- 베카리아 : 누구도 자신의 가장 큰 자유인 생명권을 양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권은 애초에 처분이나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개인들은 생명권을 양도하지도, 사형에 동의하지도 않았음

- ② 형벌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루소 :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베카리아 :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

- ③ 형벌은 누가 제정하고 누가 집행하는가?

- 루소 : 형벌의 제정은 국민이, 집행은 정부가 함(‘형벌권’은 정부에 있음)
- 베카리아 : 군주가 형벌을 제정하고 집행함(‘형벌권’이 군주에게 있음)

- 37 [21-11-19] ③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간과한다. ( )
- 38 [21-09-13] ④ 루소 · 베카리아 :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 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 )
- 39 [25-06-19] ④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40 [20-09-19] ③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적 정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 )
- 41 [24-06-09] ④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 )
- 42 [24-11-11] 르. 베카리아 · 루소 :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 )
- 43 [22-06-19] ⑤ (베카리아가 보기에 루소는)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44 [22-11-09] L. 베카리아 · 루소 :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한가? ( )
- 45 [23-11-19] ②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생명권 양도 여부가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46 [25-11-16] ③ (베카리아가 보기에 칸트와 루소는)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
- 47 [25-11-16] ④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48 [26-06-14] ①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가 아님을 간과한다. ( )



## 5. 공리주의 사상가들(베카리아, 벤담)의 형벌론

공리주의에서는 모든 것의 목적이 공리 증진에 있다고 보므로, 형벌 집행의 목적 역시 공리 증진에 있다고 본다. 이때 **형벌을 통해 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도는 바로 형벌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는 범죄란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고, 그러한 사회적 손실을 막는 것은 곧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리주의 사상가들인 베카리아와 벤담은 모두 형벌의 주요 목적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본다. 참고로 범죄 예방 효과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 **일반 예방주의** : 시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
- **특수 예방주의** :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 방지

동시에, 베카리아와 벤담은 **범죄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는 범위 내에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악이며, 범죄자가 겪는 고통 역시 사회 전체의 공리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 49 [20-06-10] 다. 벤담 · 베카리아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 )
- 50 [20-06-10] 라. 벤담 · 베카리아 :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다. ( )
- 51 [23-06-10] ① (벤담이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52 [23-09-12] ② 베카리아 :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 )
- 53 [23-09-12] ⑤ 베카리아 · 벤담 :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지력을 갖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 )
- 54 [26-09-05] ② 베카리아 :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써 억제해야 한다. ( )
- 55 [26-09-05] ⑤ 베카리아 :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한다. ( )
- 56 [23-07-15] ④ (벤담과 베카리아가 보기에 칸트는)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범죄자에게 행해져야 함을 간과한다. ( )
- 57 [24-07-10] 나. 베카리아 : 형벌 집행 시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가? ( )
- 58 [24-03-17] 다. 베카리아 :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 )
- 59 [23-10-09] ⑤ 베카리아 :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증대된다. ( )

## 6. 형벌 파트 사상가들의 공통점

- ①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② **형벌 =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적 보복은 X)
- ③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
- ④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음
- 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피해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님
- ⑥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 ⑦ **죄형 법정주의 :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 규정되고 집행되어야 함**

- 60 [21-06-10] ① (베카리아가 보기에 벤담은)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61 [21-06-10] ⑤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와 벤담은)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62 [21-09-13] ⑤ 베카리아 · 칸트 :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
- 63 [22-06-19] ① (루소가 보기에 칸트와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64 [22-11-09] 다. 칸트 · 베카리아 · 루소 :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 ( )
- 65 [25-09-15] 나. 베카리아 · 칸트 :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 ( )
- 66 [26-09-05] ①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67 [22-11-09] 다. 베카리아 :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가? ( )
- 68 [22-11-14] 나. 베카리아 :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 )
- 69 [23-07-15] ① (벤담이 보기에 베카리아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70 [22-10-07] ① 칸트 :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

①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범죄가 무거울수록 형벌도 무겁게, 범죄가 가벼울수록 형벌도 가볍게 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칸트**는 비례 관계 중에서도 **1:1 비례**, 즉 범죄와 형벌이 동일시되는 **1:1 비례 관계만을 긍정합니다** (동해 보복의 원리). 한편 공리주의 사상가들의 경우,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가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범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저해한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베카리아와 벤담은 범죄가 사회적 공익을 저해한 정도에 비례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②, ③ 이때 공적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는 물론 사상가들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형벌이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 \* 국가 윤리

### 1. 아리스토텔레스 VS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홉스, 로크, 루소)

#### — 공통점

- ① 개인은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짐
- ② 개인은 국가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
- ③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 차이점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개인 간의 동의, 합의, 약속, 계약 같은 인위적인 과정 없이,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 : 국가는 개인 간의 이성적인 동의, 합의, 약속, 계약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위적 산물임**

- 01 [22-06-02] ③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 )
- 02 [22-06-02] ⑤ 로크 · 아리스토텔레스 :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
- 03 [21-06-20] ㄷ.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 )
- 04 [21-06-20] ㄹ.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 )
- 05 [22-09-07] ㄴ. 로크 :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수립된다. ( )
- 06 [22-09-07] ㄷ. 로크 :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공동체이다. ( )
- 07 [23-09-19] ② (루소와 홉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08 [23-09-19]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홉스는)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09 [25-09-09] ㄱ. 홉스 :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10 [22-11-15] ③ 로크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 )
- 11 [26-09-19] ㄷ. 홉스 · 루소 :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 )
- 12 [24-11-07] ㄴ. 홉스 : 국가는 신의(信義)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인가? ( )
- 13 [24-03-13] ㄷ. 루소 · 로크 :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 계약이 성립한다. ( )
- 14 [22-07-05] ① 아리스토텔레스 :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된다. ( )
- 15 [20-04-12] ① 로크 :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 ( )
- 16 [20-04-12] ② 로크 :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다. ( )
- 17 [23-07-18] ⑤ 아리스토텔레스 · 홉스 :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에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
- 18 [23-04-05]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루소는)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 )
- 19 [21-10-06] ⑤ (홉스와 로크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 )

국가 윤리 문항 선지에서 '인위적', '자연적' 같은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이 포인트,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의 차이점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그냥 멍하니, 홉스의 입장에서 국가가 자연적 인격이냐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지 말고, 바로 이 내용을 떠올려서 풀어 주어야겠지요?

## 2. 홉스의 사회 계약론

① 자연권 :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

② 자연 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법 X 소유권 X 정의 X 부정의 X 비참하고 잔혹한 상태 O

③ 사회 계약 : 자신의 생명을 소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 보전권(생명권)만 남기고, 나머지 자연권의 무제한적인 부분은 모두 양도

④ 정치 체제 : 절대 군주제

— 주권의 주체 : 절대 군주

— 군주는 사회 방위와 평화를 위해 모든 인민의 힘과 의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군주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절대 주권을 양도받은 제3자(외부인)이므로 사회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함

— 저항권 부정 : 개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군주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함

- 20 [23-06-11] 나. 홉스 :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 )
- 21 [22-11-15] ② 홉스 :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
- 22 [24-06-06] 나. 홉스 :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 )
- 23 [24-06-06] 나. 홉스 :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 )
- 24 [24-06-06] 다. 홉스 :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
- 25 [23-11-12] 다. 홉스 :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 )
- 26 [23-11-12] 라. 로크 · 홉스 :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 )
- 27 [24-11-07] 나. 홉스 :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한가? ( )
- 28 [24-11-07] 다. 홉스 :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가? ( )
- 29 [25-09-09] 나. 홉스 : 인간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 )
- 30 [25-09-09] 라. 홉스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 )
- 31 [25-11-10] 나. 홉스 : 절대 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 )
- 32 [25-11-10] 나. 홉스 : 사회 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 ( )
- 33 [25-11-10] 라. 홉스 :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 ( )
- 34 [26-06-08] ① 홉스 :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 ( )
- 35 [26-06-08] ② 홉스 :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한다. ( )
- 36 [26-06-08] ⑤ 홉스 :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 )
- 37 [26-09-19] 나. 홉스 : 사회 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 )
- 38 [26-09-19] 나. 홉스 · 루소 : 사회 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 )
- 39 [26-09-19] 라. 홉스 :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 )
- 40 [21-10-06] ① 홉스 :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진다. ( )
- 41 [21-10-06] ③ (로크가 보기에 홉스는)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간과한다. ( )
- 42 [20-10-03] ③ 홉스 : 국가는 선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 )
- 43 [23-03-10] ① 홉스 :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44 [23-03-10] ② 홉스 :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 )
- 45 [23-03-10] ⑤ 홉스 :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 )
- 46 [22-10-12] ① 홉스 : 절대적 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 )
- 47 [22-10-12] ② 홉스 :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이 된다. ( )
- 48 [23-10-02] ② 홉스 :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니므로 사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
- 49 [23-10-02] ⑤ 홉스 · 로크 : 사회 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이 보장된다. ( )
- 50 [24-04-15] ② (홉스가 보기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51 [24-04-15] ④ 홉스 :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주권을 가질 수 있다. ( )
- 52 [24-04-15] ⑤ (로크가 보기에 홉스는)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 )
- 53 [24-07-18] ① 홉스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불의에 맞서 자연권을 행사한다. ( )
- 54 [24-10-19] ① 홉스 : 주권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 )
- 55 [24-10-19] ② 홉스 : 사회 계약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것을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다. ( )
- 56 [24-10-19] ⑤ 홉스 · 로크 :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근거해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 )

국가 윤리 파트, 특히 사회 계약론에서 친구들이 가장 자주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자연권'과 '주권'입니다. 둘 다 '권'이라는 말로 끝나니까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연권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권리로서, 자연 상태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권은 한 사회의 주인되는 권리, 즉 한 사회에 대한 주된 통치 권력으로서, 사회 계약과 국가 수립 이후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홉스에 따르면, 개인은 생명 보전권은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경우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저항권'을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항권은 철학계에서 '혁명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홉스는 확실히, 인민이 군주를 교체하기 위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크는 국가에 대한 동의를 크게 '명시적 동의'와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구분합니다.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준법의 의무, 즉 국가에 복종할 의무)는 물론이고,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의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국가의 땅을 밟고 있음, 즉 영토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내가 그 국가의 법에 따르겠다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준법의 의무, 즉 국가에 복종할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 3. 로크의 사회 계약론

- ① 자연권 :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소유권), 자연법의 집행권(재판권, 처벌권)
- ② 자연 상태 : 대체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 자연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 개인들은 자연법을 인식하고 있음
  - 모두가 재판관이자 처벌관이기 때문에, 자연법의 위반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 즉 자연법의 집행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됨
  - 개인들은 공평한 재판관이자 공통의 권력으로서의 국가를 원하게 됨
- ③ 사회 계약 : 자연법의 집행권(재판권, 처벌권)을 양도
  - 생명권과 재산권은 양도 X
  - 자유권은 일부 양도
- ④ 정치 체제 : 간접 민주주의
  - 주권의 주체 :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으나, 국가 기관에 의해 주권이 대표됨
  - 입법권은 입법부에, 집행권(행정권)은 정부에 신탁됨
  - 저항권 인정 :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은 신탁된 권력이므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개인은 신탁을 철회하고 입법부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음

- 57 [22-06-02] ① 로크 : 국가는 공동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
- 58 [23-06-11] ㄱ. 로크 :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 )
- 59 [23-06-11] ㄴ. 로크 :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 )
- 60 [22-11-15] ④ 로크 :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 )
- 61 [22-11-15] ⑤ 로크 :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지속될 수 있다. ( )
- 62 [23-11-12] ㄱ. 로크 :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재판관이 된다. ( )
- 63 [23-11-12] ㄴ. 로크 : 정부에 신탁된 권력은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 )
- 64 [24-09-13] ㄱ. 로크 :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 )
- 65 [24-09-13] ㄴ. 로크 :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 )
- 66 [24-09-13] ㄷ. 로크 :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동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 )
- 67 [24-11-07] ㄹ. 로크 :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는가? ( )
- 68 [25-09-09] ㄷ. 로크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
- 69 [25-09-09] ㄹ. 로크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 )
- 70 [25-11-10] ㄷ. 로크 :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 )
- 71 [25-11-10] ㄹ. 로크 :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 ( )
- 72 [26-06-08] ③ 로크 : 정치 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 ( )
- 73 [26-06-08] ④ 로크 : 자연 상태에서 공동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 ( )
- 74 [26-06-08] ⑤ 로크 :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 )
- 75 [24-03-13] ㄴ. 로크 :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 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 )
- 76 [22-07-05] ④ 로크 : 시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 )
- 77 [20-10-03] ④ 홉스 · 로크 : 국가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 권력체이다. ( )
- 78 [22-04-13] ③ 로크 :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 )
- 79 [22-04-13] ④ 로크 :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 )
- 80 [23-03-10] ④ 로크 :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 )
- 81 [22-10-12] ④ 로크 : 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 )
- 82 [22-10-12] ⑤ 홉스 · 로크 :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83 [23-10-02] ④ 로크 :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
- 84 [24-04-15] ④ 로크 :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주권을 가질 수 없다. ( )
- 85 [24-07-18] ④ 로크 :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
- 86 [22-03-15] ⑤ 로크 :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 )
- 87 [24-10-19] ③ 로크 :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 )

## 심화 로크의 키워드

특징이 뚜렷한 홉스나 루소와 달리 로크의 경우 제시문을 잘 판별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크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① **공통의 재판관, 공통의 법률, 자연법의 집행권(재판권, 처벌권)**
- ② **국가의 목적이 개인의 재산권 보장에 있음을 강조함**
- ③ **신탁, 국가에 대한 저항권(혁명권)을 주장함**

88 [25-11-10]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이다.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 ]

89 [26-06-08]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을 치유할 목적을 시민 사회가 등장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 ]

90 [24-11-07]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 저항할 수 있다. [ ]

## 4. 루소의 사회 계약론

- ① 자연권 : 생명권 등
- ② **자연 상태 :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태**
  - 사회 상태로 가면서 사유 재산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유 재산권의 발생으로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것이 극심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됨**
  - 개인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됨**
- ③ **사회 계약 : ‘모든’ 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양도**
- ④ **정치 체제 : 직접 민주주의**
  - **주권의 주체 : 국민 (주권은 양도, 대표, 분할 불가능한 절대적인 권한)**
  - **입법권 : 사실상 주권과 동일하며, 역시나 국민에게 있음**
  - **집행권 : 주권 X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력 O 정부에 부여됨**
  - **정부 : 주권을 대표하는 주체 X 집행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역할에 그침**

91 [23-09-19]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루소는) 공공의 이익에 입각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92 [23-09-19] ③ (홉스가 보기에 루소는)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 )

93 [23-09-19] ④ (루소가 보기에 홉스는)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임을 간과한다. ( )

94 [26-09-19] ㄴ. 홉스 · 루소 : 사회 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 )

95 [24-03-13] ㄱ. 루소 :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게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 )

96 [26-06-09] ① 루소 :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 ) (윤사)

97 [26-06-09] ② 루소 :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한다. ( ) (윤사)

98 [24-06-19] ② 루소 :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다. ( ) (윤사)

99 [24-06-19] ③ 루소 :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 (윤사)

형벌 파트에서 루소는 사회 계약론 사상가로서, 개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생명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윤리 파트에서도 루소는 홉스, 로크, 루소 중 유일하게 ‘생명권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권의 양도를 주장하는 사상가에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분명히 ‘주권’과 ‘자연권’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루소는 모든 자연권의 양도를 주장하면서도, 주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상가입니다. 만약 자연권과 주권을 혼동한다면, 여기에서부터 개념의 충돌이 생길 수 있겠지요. 주의하십시오.)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루소가 보기에 일반 의지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선한 의지’입니다.

주권이 대표될 수는 없지만 대리나 대행이 될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결국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적인 매개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뜻, 즉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루소에 따르면, 국가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므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입법권 역시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따라서 입법 행위를 포함한, 국가의 주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꼭 국민이 일일이 집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따라서 국민이 결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집행권은 정부에 있게 되며, 바로 이를 두고 주권을 ‘대리’한다 또는 ‘대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기 때문에 루소의 입장에서 형벌권, 즉 형벌을 집행할 권한 역시 국민이 아니라 정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시민 불복종

부정한 체제, 기본 구조, 헌법에 저항하거나 이익을 제거하는 것은 혁명(쿠데타)이지, 절대로 시민 불복종이 아닙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은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 '부정한 사회' 중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오직 '거의 정의로운 사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두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결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을 누가 하든, 그 주체는 중요하지 않은 셈입니다. 오직 시민 불복종을 하는 근거, 즉 시민 불복종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시민 불복종을 왜 하느냐,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오직 시민 불복종의 '근거'만이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익 집단이나 종교 집단도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이때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시민 불복종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 혹은 종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려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 될 일입니다. ① 명백한 부정의인가? ② 심각한 부정의인가? ③ 법, 제도 정책 그 자체이거나, 법, 제도, 정책에 의한 산물인가?

### 1. 시민 불복종 VS 혁명

- 시민 불복종 : 개별적인 법, 제도, 정책에 저항하는 것
- 혁명(쿠데타) : 사회를 규정하는 근본 틀(체제, 기본 구조, 헌법)에 저항하는 것

- 01 [22-06-16] ③ 롤스 :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
- 02 [22-06-16] ④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03 [21-06-11]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
- 04 [20-06-12] ㄹ.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위이다. ( )
- 05 [23-03-17] ㄴ.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다. ( )

### 2. 롤스의 '사회 분류'

#### ① 정의로운 사회

-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 : 근본 틀부터 개별 법, 제도, 정책까지 모두 정의로운 사회
- 애초에 부정이가 존재하지 않아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음
- 거의(대체로) 정의로운 사회 : 근본 틀(체제, 기본 구조, 헌법)은 정의롭지만, 가끔 심각하게 부정한 법, 제도, 정책이 제정되는 사회 →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

#### ② 부정한 사회 : 사회의 근본 틀(체제, 기본 구조, 헌법)부터가 부정한 사회

-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 없으므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음

- 06 [22-06-16] ②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 )
- 07 [21-11-12] ③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 )
- 08 [22-09-17] ㄴ. 롤스 : 매우 부정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 )
- 09 [23-11-14] ㄷ. 롤스 : 심각한 부정이가 존재하는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가? ( )
- 10 [24-09-07] ② 롤스 :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 )
- 11 [26-06-06] ② 롤스 :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 3. 롤스의 '시민 불복종'

#### ① 근거 : 다수의 정의감 = 정의의 원칙 =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

- 개인적인 신념, 이익, 종교적 교설은 절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들은 오직 시민 불복종과 일치하거나 시민 불복종을 지지하는 것만 가능

#### ② 주체 : 개인, 소수, 소수자, 집단, 다수자, 이익 집단, 종교 단체 등 모두 가능

- 주체가 누구이든 근거는 반드시 다수의 정의감이어야 함
- 다만, 이미 많은 자가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시민 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음
-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존재함

#### ③ 대상 : 명백하고 심각하게 부정한 법, 제도, 정책

- 명백하고 ... :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X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민 불복종 가능
- ... 심각하게 부정한 ... : 사소한 부정의는 참아야 함
-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부정한 법도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 법, 제도, 정책 : 체제, 기본 구조, 헌법은 물론이고, 원칙(정의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도 애초에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님

- 12 [20-09-07] 나. 롤스 :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
- 13 [22-06-16]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 ( )
- 14 [22-06-16] ⑤ 시민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 )
- 15 [21-11-12] ④ 롤스 :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 )
- 16 [22-11-03] ③ 롤스 :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 )
- 17 [22-09-17] 나. 롤스 :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
- 18 [21-06-11] ② 롤스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
- 19 [23-06-12] 나. 롤스 :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
- 20 [20-11-18] ② 롤스 :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
- 21 [20-11-18] ⑤ 롤스 :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 )
- 22 [21-09-17]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
- 23 [21-09-17] ② 롤스 :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
- 24 [21-09-17] ⑤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 )
- 25 [20-06-12] 다. 롤스 :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 )
- 26 [24-06-05] 라. 롤스 :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허용될 수 있는가? ( )
- 27 [24-09-07] ⑤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이다. ( )
- 28 [25-09-12] 나. 롤스 :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
- 29 [25-09-12] 라.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 )
- 30 [25-11-18]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 ]
- 31 [25-11-18] ① 롤스 :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
- 32 [25-11-18] ② 롤스 :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33 [25-11-18] ③ 롤스 :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없다. ( )
- 34 [25-11-18] ④ 롤스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 ( )
- 35 [25-11-18] ⑤ 롤스 :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36 [26-06-06] ① 롤스 :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 )
- 37 [26-06-06] ④ 롤스 :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 )
- 38 [21-03-07] 라. 롤스 : 소수자 투표권 제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 ( )
- 39 [23-07-12] ② 롤스 : 소수자의 재산 소유권이 침해되면 시민 불복종이 전개될 수 있다. ( )
- 40 [24-03-04] 다. 롤스 :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
- 41 [21-07-17]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양심에 기반을 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
- 42 [21-04-14] 다. 롤스 :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청원이다. ( )
- 43 [21-04-14] 라. 롤스 :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44 [20-04-07] ① 롤스 :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우리, 앞의 분배 정의 파트에서 롤스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대해 배웠던 게 기억이 나나요? 바로 지금이 그것을 써먹을 때입니다!

#### 4. 싱어의 ‘시민 불복종’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첫째가 일반적인 경우로서,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다수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둘째는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 반영되었지만 그 결정이 심각하게 그릇되어 보이는 경우, 다수의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싱어는 다수의 결정이 일반적으로는 옳지만 때로는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수의 결정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책, 혹은 다수의 정의관 그 자체에 대한 시민 불복종도 가능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이다.

**결국 싱어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질 수도,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지므로,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하며,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②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으로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파괴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 감소'의 정도를 고려하고, 시민 불복종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의 정도를 저울질해 봄으로써 시민 불복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③ 롤스에 따르면 부정의한 사회에는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 없으므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면, 시민 불복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④ 롤스에 따르면 부정의가 명백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 그 부정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어에 따르면 어떤 부정의한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했을 때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 같다면, 시민 불복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⑥ 이를 두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라는 말로, 싱어는 '시민 불복종 주체는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⑦ 롤스의 경우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 항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에 대한 강제나 위협이 아닙니다.

- 45 [23-11-14] 르. 싱어 :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 )
- 46 [24-06-05] 나.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 )
- 47 [26-09-09] 르. 싱어 :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 )
- 48 [23-07-12] ④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설득하기보다 강제하기 위한 시도이다. ( )

## 5. 롤스 VS 싱어

### — 공통점

- ①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 비폭력,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
- ②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야 함(특히 불행한 결과를)**
- ③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함)**
- ④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⑤ **시민 불복종 행위가 정의로운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⑥ **시민 불복종 주체는 법체계 전반이나 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음**
- ⑦ **시민 불복종 그 자체는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음**

### — 차이점

- ①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가?**
  - 롤스 : 다수의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자 근거이므로, 다수의 정의관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싱어 : 예외적으로 다수의 정의관이 심각하게 그릇되어 보이는 경우, 다수의 정의관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함
- ② **다수의 이익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목적이 될 수 있는가?**
  - 롤스 : 이익이 아닌 오직 정의만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목적이 될 수 있음
  - 싱어 : (공리주의 입장에서) 다수의 이익 증진이 곧 정의이므로, 가능함
- ③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
  -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숙고'를 강제(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싱어 :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다수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님

- 49 [22-09-17] 드. 싱어 :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 )
- 50 [22-09-17] 르. 롤스 · 싱어 :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
- 51 [21-06-11] ④ 싱어 :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
- 52 [21-06-11] ⑤ 롤스 · 싱어 :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
- 53 [23-06-12] 가.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불법 행위이지만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 )
- 54 [23-09-08] 르. 싱어 · 롤스 :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
- 55 [24-06-05] 가.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 )
- 56 [24-09-07]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 )
- 57 [25-06-14] 가. 롤스 · 싱어 :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 )
- 58 [25-09-12] 드. 롤스 :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 )
- 59 [26-06-06] ③ 롤스 :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 )
- 60 [22-03-19]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위법 행위인가? ( )
- 61 [22-03-19] ③ 롤스 · 싱어 :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 )
- 62 [23-07-12] ③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 )
- 63 [22-04-18] ⑤ 롤스 ·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한다. ( )
- 64 [24-07-07] 가.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 )
- 65 [22-10-19] 드. 싱어 :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 ( )

## 6. 시민 불복종 파트 사상가들(소로, 롤스, 싱어)의 공통점

- ①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를 개선하고 정의를 증진하는 데 있음
- ②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임**
- ③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적 신념을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임**
- ④ 시민 불복종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66 [20-09-07] ㄹ. 롤스 · 소로 :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 )

67 [24-11-09] ㄴ.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 )

68 [21-11-12] ⑤ 싱어 ·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 )

69 [26-09-09] ㄴ.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민주 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 )

70 [26-09-09] ㄷ. 롤스 : 시민 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 )

71 [20-03-12] ㄹ.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 )



# 4 과학과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과학 기술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정보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대부분 독해형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 과학 기술 윤리 파트에서는 주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명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외에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오랜만에 출제될 수도 있고, 베이컨의 과학 기술 낙관주의가 기습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꼼꼼히 공부해 둡시다.
- 자연과 윤리 파트에는 주로 출제되는 사상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칸트,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슈바이처, 네스 같은 다른 사상가들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수능에 잘 출제되지 않은 사상가들이더라도 기본 개념, 그리고 올해 연계 교재에 수록된 심화 개념 정도는 모두 정리를 잘 해 두어야 합니다.
- 자연과 윤리 파트의 경우,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할 것 없이 **모든 사상가가 동의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상가가 동의하는 내용을 반드시 잘 이해해 두시되, 동시에 ‘도덕적 고려 대상’과 ‘도덕적 행위 주체’의 표현적인 차이, 그리고 ‘수단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아 둡시다. 결국 자연과 윤리 파트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말장난이 심한 파트**입니다. **얼마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현장에서 독해를 정확하게 잘 해 내는지가 자연과 윤리 문항의 정답 여부를 가를 것**입니다. 얼마나 사상가들의 원전을 많이 찾아 읽었는지가 아니라요!

# Step 1. 사전 개념 포 파이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라!

사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오답 노트까지!

결국 야스퍼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 그 자체'이냐? 아니면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이냐? 즉, "기술에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기술로 인해 기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냐?"

## \* 과학 기술 윤리

### 1. 야스퍼스 VS 하이데거

#### — 차이점

- 야스퍼스 :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며, 가치 중립적인 수단이자 공허한 힘일 뿐임  
→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선/악)은 불가능함**
- 하이데거 : 기술의 본질은 수단적 속성이 아니라 **탈은폐**이며, 기술은 탈은폐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존재 의미, 인간과 자연이 관계맺는 방식을 규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위험함  
→ **언제나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이 필요함**

#### — 공통점

- ①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②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인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 ③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활용 방향과 맥락에 대해 윤리적 성찰이 필요함

- 01 [21-09-08] ① 하이데거 :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인가? ( )
- 02 [21-09-08] ② 야스퍼스 · 하이데거 :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
- 03 [21-09-08] ③ 야스퍼스 · 하이데거 :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
- 04 [25-06-05] ㄷ. 야스퍼스 :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중립적이다. ( )
- 05 [25-06-05] ㄹ. 하이데거 · 야스퍼스 :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 )
- 06 [20-11-19] ③ 하이데거 :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 )
- 07 [23-11-07] ③ (야스퍼스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불필요함을 간과한다. ( )
- 08 [23-11-07] ④ (야스퍼스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간과한다. ( )
- 09 [24-09-06] ② 야스퍼스 :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 ( )
- 10 [24-09-06] ④ 하이데거 :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 )
- 11 [26-06-03] ① 야스퍼스 :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다. ( )
- 12 [26-06-03] ② 야스퍼스 :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 )
- 13 [26-09-17]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야 한다. [ ]
- 14 [26-09-17] ① 야스퍼스 :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 )
- 15 [26-09-17] ③ 야스퍼스 :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을 성찰하여 기술을 지도해야 한다. ( )
- 16 [26-09-17] ④ 야스퍼스 :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 )
- 17 [26-09-17] ⑤ 야스퍼스 :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 )



## 2. 요나스의 ‘책임’

- ① 대상 : 의도한 / 의도하지 않은 / 예상한 / 예상하지 못한 / 사전적 / 사후적 책임 모두
- ② 주체 : **현세대**
- ③ 대상 : **현세대**, 미래 세대, 동식물, 자연 전체
- ④ 특징
  - **공포의 발견술** : 희망보다는 과학 기술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포에서 도출됨
  - 현세대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하여 **일방적, 절대적, 비호혜적** 책임을 짐
  -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가능성)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의무)가 도출됨

- 18 [22-09-04] ② 요나스 :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
- 19 [22-09-04] ④ 요나스 :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호혜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 )
- 20 [21-11-11] ㄴ. 요나스 :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 )
- 21 [21-11-11] ㄹ. 요나스 :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 )
- 22 [22-11-12] ② 요나스 : 과학 기술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
- 23 [22-11-12] ④ 요나스 :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는가? ( )
- 24 [24-11-18] ① 요나스 : 인간은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 )
- 25 [21-06-05] ㄱ. 요나스 :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
- 26 [21-06-05] ㄴ. 요나스 :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 )
- 27 [24-06-13] ③ 요나스 :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이 윤리의 나침반임을 생각하라. ( )
- 28 [25-09-08] ① 요나스 :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 ( )
- 29 [25-09-08] ② 요나스 :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 )
- 30 [25-09-08] ③ 요나스 :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 )
- 31 [25-09-08] ④ 요나스 :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 )
- 32 [25-09-08] ⑤ 요나스 :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킨다. ( )
- 33 [25-11-06] ㄹ. 요나스 :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34 [21-03-06] ③ 요나스 :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되어야 한다. ( )
- 35 [22-07-20] ㄹ. 요나스 : 인간은 행해진 것뿐만 아니라 행위 해야 할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 ( )
- 36 [22-10-02] ③ 요나스 : 인간은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 사후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 )
- 37 [21-07-20] ㄹ. 요나스 :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도 책임의 주체와 대상이 되어야 한다. ( )
- 38 [24-03-11] ③ 요나스 : 현세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적 책임이 있다. ( )

사실상 요나스의 입장에서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세대는 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참고로 책임의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되는 것은 **현세대**뿐입니다.

## \* 자연과 윤리

예를 들어 동물 중심주의 사상이 라고 해서 동물을 도덕 능력자 또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에게 동물이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도덕 무능력자이지만, 동시에 도덕적 고려 대상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과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다만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의무의 대상 역시 인간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반면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은 '도덕적 행위 능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간 아닌 존재들도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칸트가 동물 학대를 반대했다고 해서 칸트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다거나,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거나 하는 선지에 낚이는 경우가 있는데, **칸트는 엄연히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칸트는 인간만의 도덕적 가치, 권리, 지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동물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지만, 그 래도 인간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애초에 칸트가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거면 칸트도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였겠어요?**

한편, '가치'가 아니라 '권리'의 경우에는, 도덕적 고려 대상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가치와 달리, 권리 중에는 수단으로서의 권리, '수단적 권리'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와 '권리'를 구분하여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 1. '도덕적 고려 대상' VS '도덕적 행위 주체'

**도덕적 고려 대상** = 도덕적 존중 대상 = 도덕적 의무 대상 = 도덕적 가치와 권리를 지니는 존재 =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존재** =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

→ **사상가마다 범위가 다름 (인간 / 동물 / 생명 / 생태 중심주의)**

**도덕적 행위 주체** = 도덕적 의무 주체 =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 이성적 존재 = 자율적 행위 주체 = 도덕 능력자

→ **모든 사상가의 입장에서 오직 인간뿐**

01 [20-06-06] ③ (칸트가 보기에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

02 [22-09-15] 나. 싱어 · 레오폴드 :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 )

03 [24-06-15] 나. 테일러 :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 )

04 [25-06-09] 나. 레건 · 테일러 :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05 [22-11-14] 나. 칸트 · 레건 · 테일러 :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

06 [24-11-15] 나. 싱어 :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 )

07 [24-11-15] 다. 레오폴드 :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 )

08 [20-11-16] ⑤ (칸트가 보기에 레건과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 )

09 [25-11-09] 나. 칸트 :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다. ( )

10 [19-07-14] 다. 테일러 · 레오폴드 :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개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 )

11 [19-03-04] 라. 테일러 · 레건 · 싱어 :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

12 [20-07-19] ③ (칸트가 보기에 싱어와 레건은)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 )

13 [24-03-10] 나. 칸트 · 레건 :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 ( )

14 [24-03-10] 라. 칸트 · 테일러 · 레건 :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15 [23-07-19] 다. 레오폴드 : 유기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16 [20-03-11] ③ 테일러 :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

### 2. '가치'

**도구적 가치**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수단)로서 유용할 때 부여되는 가치

→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음**

**내재적(본래적) 가치** : 어떤 존재에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존엄한 가치

→ **도덕적 고려 대상만 가질 수 있음**

## 오늘의 오답 노트

### 선지에 “가치”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는!

원래는 ‘비도구적 가치’,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인 가치’ 같은 말을 보면 머리부터 새하얗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가치’란 도구적 가치이거나 수단적 가치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다.

**비도구적 가치**: 도구로서의 가치가 아닌 가치라는 뜻이므로, 내재적 가치!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라는 뜻이니, 내재적 가치!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인 가치**: 잘 생각해 보면, 도구적 가치는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존한다. 인간이 그 존재를 보고 ‘유용하다’라는 가치 판단을 내릴 때만 도구적 가치가 부여되니까. 반면 내재적 가치는 그 존재에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존하지 않지. 따라서 역시나 내재적 가치!

- 17 [20-06-06] ⑤ (칸트와 테일러가 보기에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 )
- 18 [22-06-10] ㄱ. 칸트: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 )
- 19 [20-11-16] ③ (테일러가 보기에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
- 20 [24-06-15] ㄴ. 테일러: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 )
- 21 [20-09-10] ㄴ. 레건: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
- 22 [22-11-14] ㄴ. 칸트 · 레건: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
- 23 [21-06-15] ㄴ. 레건 · 칸트: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
- 24 [23-09-10] ㄴ. 레오폴드 · 테일러 · 레건: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 )
- 25 [26-06-10] ㄱ. 테일러: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
- 26 [24-03-10] ㄷ. 테일러 · 레건: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 )
- 27 [23-03-15] ㄱ. 칸트: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 )
- 28 [24-07-19] ㄴ. 레오폴드: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
- 29 [23-07-19] ㄴ. 칸트 · 테일러: 모든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 )
- 30 [21-10-05] ㄱ. 네스: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 )
- 31 [22-04-11] ㄴ. 레오폴드 · 테일러 · 칸트: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 )

### 3. 자연과 윤리 파트 사상가들의 공통점

- ① 도덕적 행위 주체 = 이성적 존재 = 자율적 행위 능력자 = 오직 인간뿐
- ②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음
- ③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함
- ④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음
- ⑤ 자연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
- ⑥ 어떤 존재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

② 대표적인 경우가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입니다.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은 사람을 찢어...! 곰이 나를 찢어죽이려고 하는데, 예컨대 생명 중심주의 사상이 테일러라고 해서 “곰은 도덕적 존중 대상이니까 곰을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남이 죽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엄연히 나도 생명체이고, 인간도 도덕적 존중 대상인걸요?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살생하는 것을 모든 사상가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③ 예컨대 아무리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라고 해서 배고픈 인간에게 라면을 끓여 주듯 배고픈 동물에게도 라면 한 그릇 끓여 줄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입니다만, 특히 싱어가 이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인트의 출제는 보통 싱어의 입장을 겨냥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벤다이어그램형 문항에서, 싱어의 입장을 제외하고 다른 두 사상가의 입장에서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다’라고 해 놓고, 싱어의 입장에도 포함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게 된다는 식입니다. ④, ⑤ 상식적으로, 인간이 생태계에 아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면,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자연을 경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자연과 윤리 문항에서 '~을/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X입니다.

다만 레건은 조금 예외인 것이, 레건은 인간과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인간과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레건이 생각하기에 '자원'은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닌, 수단으로 '만'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건을 제외한 다른 사상가들은 자원시와 수단시 사이에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상가들은 모두 자원시도 되고, 수단시도 된다고 봅니다.

## 오늘의 오답 노트

### “어떤” 존재이든 “모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들만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또 아니었다. 도덕적 고려 대상인 존재들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들을 ‘단순히’ 수단으로 ‘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사상가들의 입장이었다!

① 도덕적 고려 대상 X: 수단으로 ‘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

② 도덕적 고려 대상 O: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수단으로 ‘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  
즉, 수단으로 이용하는 와중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 대우 필요

- 32 [20-09-10] 르. 레오폴드 · 레건 · 테일러 :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
- 33 [21-06-15] ㄱ. 싱어 :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
- 34 [23-09-10] ㄱ. 레오폴드 · 테일러 · 레건 :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
- 35 [23-09-10] 르. 레오폴드 · 테일러 · 레건 :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 )
- 36 [23-11-10] ㄴ. 테일러 · 칸트 · 싱어 : 종(種)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
- 37 [25-09-06] ㄴ. 레오폴드 · 칸트 :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 )
- 38 [25-11-09] 르. 칸트 · 레오폴드 · 싱어 :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
- 39 [26-09-14] ㄱ. 싱어 :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
- 40 [22-09-15] ㄱ.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
- 41 [22-09-15] 르. 칸트 · 싱어 · 레오폴드 :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
- 42 [24-06-15] ㄴ. 테일러 · 레오폴드 :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 )
- 43 [25-06-09] 르. 레건 · 테일러 · 칸트 :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44 [23-04-15] ⑤ 싱어 · 테일러 :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
- 45 [22-07-17] ㄴ. 레오폴드 : 집합적 유기체로서의 대지는 효용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 )
- 46 [23-07-19] ㄱ. 칸트 · 테일러 · 레오폴드 : 인간이 식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
- 47 [24-07-19] 르. 칸트 · 레오폴드 :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
- 48 [23-03-15] ㄷ. 싱어 :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 49 [24-04-10] ㄱ. 테일러 · 싱어 :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 )
- 50 [24-04-10] 르. 싱어 :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 )
- 51 [20-07-19] ⑤ (싱어가 보기에 칸트는)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간과한다. ( )
- 52 [19-04-15] ㄱ. 레오폴드 · 싱어 : 인간은 동식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 )
- 53 [19-04-15] ㄴ. 싱어 : 유정(有情)적 존재의 특징에 따라 배려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 )
- 54 [20-04-10] ㄴ. (레건이 보기에 싱어는)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
- 55 [24-10-10] ㄱ. 칸트 :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 )
- 56 [24-10-10] 르. 칸트 · 테일러 · 레오폴드 :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

## 4. 상어 VS 레건

— 공통점 : 동물 중심주의

- 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② ‘모든’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③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

— 차이점

- ① 도덕적 고려 대상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

싱어 : 쾌고 감수 능력 (= 이익 관심 = 긍정성 = 감각)  
 레건 : 삶의 주체  
 → 쾌고 감수 능력을 포함하여, 기억 능력, 자의식 등을 갖춘 존재

- ②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싱어 : 공리의 원리  
 레건 : 의무론(내재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

- ③ 동물 실험은 허용될 수 있는가?

싱어 :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하고, 인류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레건 : 절대 허용 불가능

- 57 [23-06-19] ㄱ. 싱어 :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 )
- 58 [16-09-10] ㄱ. 레건 :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 )
- 59 [23-11-10] ㄴ. 싱어 : 인간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 )
- 60 [22-10-15] ④ (테일러가 보기에 싱어는)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61 [20-04-10] ㄴ. (레건이 보기에 싱어와 테일러는) 유정(有情)적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62 [19-03-04] ㄱ. 레건 · 싱어 :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 )
- 63 [20-07-19] ④ 레건 : 인간 외의 일부 유정물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
- 64 [24-03-10] ㄴ. 레건 :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5. 테일러의 ‘인간의 4대 의무’

- ① 해악 금지의 의무(불침해의 의무) :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② 불간섭의 의무 : 인간은 생태계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조작, 통제, 개조하려고 하여서는 안 됨
- ③ 신의의 의무(성실의 의무) : 인간은 야생 동물을 기만하여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④ 보상적 정의의 의무 :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생명체에게 해악을 준 경우, 인간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함

- 65 [23-11-10] ㄱ. 테일러 :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 )
- 66 [24-06-15] ㄱ. 테일러 :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 )
- 67 [20-09-10] ㄱ. 테일러 :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 ( )
- 68 [20-04-10] ㄴ. (테일러가 보기에 싱어와 레건은) 인간이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님을 간과한다. ( )
- 69 [23-10-11] ㄱ. 테일러 : 인간은 이성적 존재와 동식물에게만 신의의 의무를 져야 한다. ( )

즉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간주하나,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맞아도 ‘유일한’ 조건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① ‘해악 금지의 의무’가 인간의 4대 의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의무는 절대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의무가 아닙니다. 테일러 역시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 생명체를 살생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② ‘불간섭의 의무’는 테일러와 레오폴드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 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 허용하지만,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인 테일러가 오히려 개별 생명체들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생태계에 함부로 간섭하여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물론, 역사나 앞에서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에서 살펴보았듯, 테일러 역시 예외적으로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③ ‘신의의 의무’에서 기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예컨대 뱀을 놓아 야생 동물을 잡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5 문화와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예술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의식주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다문화 윤리 파트 또는 종교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 예술 윤리 파트의 경우 크게 보면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칸트의 예술 윤리가 꽤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문항은 현장에서 제시문 독해만 잘해도 어느 정도 풀어 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역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칸트의 예술 윤리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 기출 소스, 그리고 올해 연계 교재에 수록된 내용 정도는 모두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칸트의 예술 윤리가 출제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의 입장이 아닌, 유교의 예술 윤리 혹은 묵자의 비악론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 의식주 윤리 파트의 경우 크게 의복 윤리, 음식 윤리, 주거 윤리로 그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복 윤리와 음식 윤리는 유교, 불교, 도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시문 독해만 잘해도 풀 수 있도록 쉽게 출제됩니다. 한편 주거 윤리의 경우, 볼노브와 하이데거의 주거 윤리를 어느 정도 학습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난이도로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의합시다.
- 다문화 윤리 파트의 경우 용광로 이론, 국수 대접 이론, 샐러드 이론의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킹이나 포퍼의 주장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도는 알아 둡시다. 종교 윤리 파트의 경우 물론 엘리야데가 중요합니다.
- 해당 대단원의 경우, 생각보다 생소한 사상가들이 매우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디 자투리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하는 5단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 두셔야, 수능에 어떤 사상가가 출제되어도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 낼 수 있습니다.



# Step 1. 실전 개념 포 파일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라!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요약 노트까지!

## \* 예술 윤리

당연하지만 키워드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상가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미와 선이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기 고유성과 자율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① 도덕 판단은 이성으로 수행하지만, 미적 판단은 감성을 통해 내려집니다.

② 선은 인간에게 의무로 다가오지만, 미, 즉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 심화 도덕주의 사상가들(플라톤, 톨스토이)의 제시문 구분하기

- ① 일반론적인 도덕주의, 아름답고 우아한 리듬, 선한 영혼, 이데아 → 플라톤
- ② 종교(신과 사랑의 세계 건설), 감정, 공감(감정의 감염성) → 톨스토이

01 [21-11-05] 아름다운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 주고, 미추(美醜) 감각을 키워 준다. 품위 없는 리듬과 화음은 나쁜 말씨나 고약한 성질과 연결되니, 작품 속에 선(善)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 ]

02 [26-06-05] 호메로스가 위대한 시인이긴 하지만, 그의 시(詩)는 참다운 실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므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시인은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지향하지 않고, 화를 잘 내며 변화무쌍한 성격을 모방하여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시를 받아들이면 국가에는 쾌락과 고통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국가에서는 영혼의 건강에 해로운 시는 추방하고,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들을 노래하는 시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03 [23-03-05] 예술의 사명은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신(神)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 ]

### 1. 칸트의 예술 윤리

- ① 미(美)와 선(善)은 구분됨 : 미와 선은 각기 고유성과 자율성을 지님
- ② 미와 선 사이에는 **형식적 유사성**이 있음 : 무관심적 태도, 자유 전제, 보편성
  - 무관심적 태도 :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움
  - 자유 전제 :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기적인 욕구로부터의 자유를 전제함
  - 보편성 : 미적 판단은 본질적으로는 주관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기에 도덕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될 수 있음
- ③ 결론
  - 미와 선은 **형식적 유사성 때문에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음**
  - 미는 순수 감성적인 것에서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함

04 [26-09-10]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적용되지만,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이 세 종류의 만족 중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 ]

05 [24-11-10] ① 칸트 :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 관심에 근거해야 한다. ( )

06 [24-11-10] ② 칸트 : 미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다. ( )

07 [24-11-10] ④ 칸트 : 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도덕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 )

08 [21-09-06] ① 칸트 :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 )

09 [21-09-06] ② 칸트 :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진다. ( )

10 [26-09-10] ㄱ. 칸트 :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 )

11 [26-09-10] ㄴ. 칸트 :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있다. ( )

12 [26-09-10] ㄷ. 칸트 :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 )

## 심화 칸트와 도덕주의 또는 심미주의 사이의 공통점

- ① 칸트와 심미주의 사이의 공통점 : 도덕과 예술은 각기 고유성과 자율성을 지님
- ② 칸트와 도덕주의 사이의 공통점 : 예술은 도덕성의 고양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13 [24-11-10] ③ 칸트 :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 )
- 14 [24-11-10] ⑤ 칸트 : 미적 판단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능력에 종속된다. ( )
- 15 [21-09-06] ⑤ 플라톤 · 칸트 :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 )

## 2. 목자의 예술 윤리

목자는 음악을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것, 즉 백성의 삶에 손해만 끼치고 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목자에 따르면 음악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손해가 된다.

- ① 돈 낭비 : “악기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돈이 얼마야.”
- ② 시간 낭비 : “그 시간에 농사나 지어라.”
- ③ 힘 낭비 : “연주할 힘 아껴서 일이나 할 것이지.”

그러나 목자 역시 음악이 인간에게 감정적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목자가 보기에 감정적 즐거움은 인간에게 하등 쓸모없는 것이다.

- 16 [24-09-17]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利]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害]를 없앴을 법도로 삼는다. 그는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에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옛 성왕(聖王)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 [ ]
- 17 [20-11-04]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 18 [22-11-18] ⑤ (목자가 보기에 순자는)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에게 무익함을 간과한다. ( )
- 19 [24-09-17] ㄱ. 목자 : 분별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해야 한다. ( )

목자는 유교 사상가가 아닙니다. 목자는 목가 사상가로서, 천하의 이익을 늘리고 손해는 줄이는 것을 하늘의 법도로 삼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함[兼愛]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증진[交利]할 수 있습니다. 즉 목자는 기본적으로 유교의 차별적 사랑에 반대하고, 무차별적 사랑인 '겸애'를 주장합니다.

## 3. 유교 사상가들(공자, 맹자, 순자)의 공통점

- ① 예(禮)는 구별과 분별의 기능을, 악(樂)은 조화와 화합의 기능을 수행함  
→ 군주는 예의와 음악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② 올바른 음악은 인간의 도덕적 품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
- ③ 사특한 음악은 백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지양해야 함

- 20 [23-11-11] ③ 순자 : 음악으로 백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 )
- 21 [23-11-11] ④ 순자 : 백성이 예법에 구애되지 않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22 [22-11-18] ② 순자 :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여 화합하는 데 음악이 필요하다. ( )
- 23 [22-11-18] ③ 순자 :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다. ( )
- 24 [20-11-04] 악(樂)은 ‘갈음’을, 예(禮)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 ]
- 25 [20-11-04] ㄱ. 유교 사상 :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 )
- 26 [24-09-17] ㄴ. 순자 :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 달라도 음악을 더불어 향유해야 한다. ( )

참고로, 예술 윤리 파트에 맹자와 정약옹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공자 또는 순자가 출제되며, 특히 순자가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심화 유교 사상가들(공자, 맹자, 순자)의 제시문 구분하기**

“사람은 시(詩)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禮)에서 바로 서고, 악(樂)에서 완성된다. 도(道)에 뜻을 두고, 덕(德)에 의거하며, 인(仁)에 의지하고, 예(藝)에서 노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공자이다.

군주는 음악을 혼자 즐기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즐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면,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주장하는 맹자이다.

고대 성왕 또는 선왕이 음악을 제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 순자이다. 한편 순자는 유교 사상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악설을 주장하므로, 음악을 통해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을 교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도 순자이다.

“지금 세속의 음악은 바르지 못한 소리이다. 그러나 음악을 앞에서 한창 연주할 때는, 관장(官長)이 그의 하급 관리를 용서해 주고, 가장(家長)이 자신의 어린 하인을 용서해 준다. 그러므로 성인은 “잠깐이라도 예악(禮樂)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음악을 통해 성인(聖人)에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늘 예와 음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약옹이다.

- 27 [22-09-12] 성왕(聖王)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사회가 어지러울 것을 염려했다. 이에 예의(禮義)와 법도를 만들어 사람의 성정(性情)을 교화하였다. 악(樂)이란 성인이 즐겼던 바이고, 악(樂)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선도할 수 있다. [ ]
- 28 [23-06-08] 한 곡의 음악은 시작할 때 여러 소리가 합해졌다가 각각의 소리가 풀려 나오며 조화를 이루고, 음이 분명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완성된다. 이렇듯 음악은 여러 소리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배워 둘 만하다. 시가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의는 사람들을 인륜에 맞게 살아가게 하며 음악은 궁극적으로 인격을 완성시킨다. [ ]
- 29 [23-11-11] 성왕(聖王)은 음악을 즐겼다. 더욱이 그것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성을 교화하였다. 음악을 활용하여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예(禮)에 따라 절제하도록 했던 것이다. [ ]
- 30 [24-09-17] 군자는 도(道)를 터득함을 즐기지만 소인은 욕망[欲]의 채움을 즐긴다. 도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된다. 옛 성왕은 음악[雅頌]을 제정하고 이끌어 사람들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 ]



#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담론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평화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해외 원조 파트에서 한 문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 담론 윤리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에 대해 묻는 문항이 출제됩니다. 특히 하버마스의 경우 지금까지 워낙 출제가 많이 이루어진 사상가이므로, 수능에서 꽤 까다롭게 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갑작스럽게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원효의 일심(一心), 그리고 작년 수능처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가 출제될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 평화 윤리 파트에는 크게 현실주의, 이상주의, 칸트, 갈통이 등장합니다. 넷 모두 출제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꼼꼼히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난도가 높은 편이니, 칸트가 제시하는 3가지 확정 조항과 6가지 예비 조항을 모두 확실하게 숙지해 둡시다. 동시에, 칸트의 평화 연맹은 세계 정부도 아니고 주권체도 아니며 평화 조약과도 다른 것이라는 등, 자주 출제되는 소스는 무조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해 둡시다. 수능에는 어떤 표현으로 출제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무지성 암기는 금물입니다.
- 해외 원조 파트의 경우, 평화 윤리 파트보다는,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롤스와 싱어가 등장하는 여러 파트들보다는 확실히 난도가 낮은 편입니다. 대신 싱어의 원조에 대해 말장난을 심화시켜 물어보았던 제작년 수능과 작년 수능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말장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부러 헛갈리는 O/X 선지를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전 개념 포 파일에서 출제 포인트를 학습한 후, O/X 선지를 통해 제대로 훈련해 봅시다.



# Step 1. 실전 개념 포 파이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라!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오답 노트까지!

## \* 담론 윤리

### 1. 하버마스의 ‘자유’와 ‘평등’

#### ① 자유

-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생각, 의견,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규범의 결과와 그 부작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② 평등

- 담론 참여자들은 모두 평등하고 동등한 담론 참여 기회와 발언권을 가져야 함

01 [21-11-03] ①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만 구성해야 한다. ( )

02 [21-11-03] ②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 )

03 [21-11-03] ③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

04 [23-06-18] ② 하버마스 : 개인적 선호나 욕구는 최대한 숨기고 발언해야 한다. ( )

05 [23-06-18] ④ 하버마스 : 합의에 이른 주장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

06 [23-06-18] ⑤ 하버마스 : 발언 기회는 합리적 논증 능력에 따라 차등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 )

07 [24-11-03] ②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

08 [24-11-03] ④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의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 ( )

09 [24-11-03] ⑤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준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 )

10 [25-06-03] ① 하버마스 :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해도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다. ( )

11 [24-06-18] ⑤ 하버마스 : 담론에서 발언 기회는 합리적 근거 제시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 )

### 2. 하버마스의 ‘진실성’과 ‘오류 가능성’

#### ① 진실성

담론 참여자들은 모두 참되고 진실된 주장을 해야 한다. 즉 옳지 않은 의도로 거짓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오류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모든 담론 참여자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애초에 담론에 부여되는 모든 주장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어떤 주장의 진리 여부는 담론 결과로서의 만장일치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담론에 부쳐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 주장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담론에 부쳐지는 모든 주장은 본질적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가 이상적 담화 상황의 요건으로 ‘진실성’을 제시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칸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합니다. 특히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준칙이 보편화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칸트처럼 인간이 이상을 가지고 스스로 준칙의 보편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어떤 준칙의 보편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준칙을 담론에 부쳐보아야 하고, 만장일치의 합의가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12 [26-09-02] ② 하버마스 : 발언의 진실성은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된다. ( )
- 13 [21-09-17] ① 하버마스 : 행위 규범으로서의 올바름은 비판과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 )
- 14 [21-09-17] ④ 하버마스 : 타당한 규범은 대화에 참여한 다수에 의해 동의를 얻은 규범이다. ( )
- 15 [23-06-18] ① 하버마스 :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 )
- 16 [22-06-03] ㄴ. 하버마스 :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 ( )
- 17 [22-06-03] ㄹ. 하버마스 :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된다. ( )
- 18 [22-06-03]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

### 3. 하버마스의 ‘주관성’과 ‘보편성’

#### ① 주관성

담론 참여자들은 공론장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생각, 의견, 욕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담론의 과정을 통해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원래 의견을 수정하고, 상호 간에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 ② 보편성

결과적으로는 특정 의견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가능하게 되며, 이때 담론 참여자들은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처음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발화로 시작했다가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담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의 ‘보편적’ 합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19 [21-09-17] ③ 하버마스 :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
- 20 [24-06-18] ③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 )
- 21 [26-09-02] ①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 )
- 22 [21-11-03]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 ]

## \* 평화/윤리

### 1. 현실주의 VS 이상주의

#### ① 국제 분쟁과 전쟁의 원인

- 현실주의 : 국가의 이기적 본성과 힘의 불균형
- 이상주의 : 제도와 정책의 결함, 상대국에 대한 무지와 오해, 국제 규범의 부재 등

#### ② 평화 유지 방법

- 현실주의 : 세력 균형 by 동맹, 전쟁, 분할 통치 등
- 이상주의 : 국가 간의 대화 · 타협 · 신뢰, 국제법과 국제 기구 수립, 제도 개선 등

이상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와 정책의 결함의 대표적인 예시로 '비밀 외교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에서는 국가들은 이미 충분히 선하고 합리적인데, 굳이 비밀 외교 같은 잘못된 대외 정책을 펼쳐서 상대국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국제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현실주의에서는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원한 평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평화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불안정하게 유지될 뿐이지, 이기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의 종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 01 [23-06-20]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의 대외 정책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익 추구로 인하여 국제 분쟁이 발생하며,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 )
- 02 [23-06-20] 국제 사회의 부정의는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국제 기구나 국제적 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제법은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평화는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협력, 국제기구 등의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
- 03 [21-06-18]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
- 04 [21-06-18]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
- 05 [26-09-16] 국제 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세력 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이다. ( )
- 06 [21-06-18] ① 이상주의 :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
- 07 [21-06-18] ② 이상주의 :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군비 경쟁은 종식된다. ( )
- 08 [21-06-18] ③ 현실주의 :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 )
- 09 [21-06-18] ④ 현실주의 :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 )
- 10 [21-11-14] ㄱ. 현실주의 : 국제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 ( )
- 11 [21-11-14] ㄴ. 이상주의 : 국제 정치의 불완전한 제도는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 12 [21-11-14] ㄷ. 현실주의 · 이상주의 : 국제 분쟁은 각국의 도덕성 증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 )
- 13 [22-11-04] ㄱ. 모겐소 :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될 수 있다. ( )
- 14 [22-11-04] ㄴ. 모겐소 :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 )
- 15 [22-06-17] ② 모겐소 : 국제적인 도덕적 합의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
- 16 [24-06-19] ㄱ. 모겐소 :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법은 전쟁뿐이다. ( )
- 17 [24-11-16] ③ 모겐소 : 국제 정치에서 개별 국가들의 권력욕은 갈등의 원인이다. ( )
- 18 [24-11-16] ④ 모겐소 :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이다. ( )
- 19 [23-11-13] ㄱ. 모겐소 : 경쟁 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 )
- 20 [23-11-13] ㄴ. 모겐소 : 국가 간 동맹 없이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은 불가능하다. ( )
- 21 [25-09-18] ① 모겐소 :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 )
- 22 [25-09-18] ② 모겐소 :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 )
- 23 [25-09-18] ⑤ 모겐소 :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 )
- 24 [26-06-17] ③ 모겐소 :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 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 )
- 25 [26-09-16] ㄱ. 모겐소 : 국제 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다. ( )
- 26 [21-07-12] ③ 이상주의 : 상대 국가에 대한 무지나 오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 )
- 27 [24-07-12] ㄴ. 모겐소 : 국제 정치의 영역은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
- 28 [24-04-12] ㄴ. 현실주의 : 다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이다. ( )
- 29 [24-04-12] ㄷ. 이상주의 · 현실주의 :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존재한다. ( )
- 30 [24-04-12] ㄴ. 이상주의 · 현실주의 : 국제 분쟁은 제도적 결함보다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 )

## 2. 칸트의 ‘확정 조항’

- ①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공화 정체에서는 전쟁이 쉽게 개전될 수 없음
- ②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연맹)에 기초해야 한다.
  - 국제 연맹(평화 연맹)을 통해 국제법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높일 수 있음
- ③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 인간의 권리 중 하나인 **환대권을 보장**하고 영구 평화에 다가서기 위해 각 국가는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이방인을 보편적으로 우호해 주어야 함

- 31 [22-06-17] ③ 칸트: 영구 평화를 위해 정치 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는 없다. ( )
- 32 [24-11-16] ① 칸트: 국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 )
- 33 [22-11-04] ㄷ. 칸트: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 )
- 34 [24-06-19] ㄷ. 칸트: 국가들의 자유 보장이라는 연맹의 이념이 확산되어야 한다. ( )
- 35 [24-11-16] ① 칸트: 국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 )
- 36 [25-06-10] ㄹ. 갈통 · 칸트: 정치 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 )
- 37 [22-09-13] ① 칸트: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
- 38 [23-09-16] ㄴ. 칸트: 세계 시민법은 인권 보장이 아닌 영구 평화를 위한 것이다. ( )
- 39 [25-09-18] ③ 칸트: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된다. ( )
- 40 [25-09-18] ④ 칸트: 평화 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의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 )
- 41 [25-11-19] ② 칸트: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과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한다. ( )
- 42 [26-06-17] ① 칸트: 평화 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 )
- 43 [26-09-16] ㄴ. 칸트: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 )
- 44 [26-09-16] ㄷ. 칸트: 합법적 국제 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 )
- 45 [21-04-08] ① 칸트: 모든 사람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

② 국제 연맹이 국가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에 따르면 국제 연맹은 오직 ‘국가들의 자유 보장’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국가들에게 국제법 준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국제 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국제 연맹을 통해 국제법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높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칸트에 따르면 국제 연맹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국제 연맹이 다수 창설될 경우 그 안에서 또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제 연맹은 반드시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③ 칸트의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의 일시적 체류권, 환대권(방문권, 우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지, 이방인의 영주권이 나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법은 아닙니다.

### 심화 칸트의 ‘국제 연맹(평화 연맹)’

칸트에 따르면 국제 연맹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합체로,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며 국가들의 자유 보장에만 관여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주권적 권력을 소유하지 않는다.
- ② 모든 국가를 하나로 병합한 ‘세계 국가(세계 정부)’와는 구분된다.
- ③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쟁 하나만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과는 구분된다.

- 46 [22-11-04] ㄴ. 칸트: 평화 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 ( )
- 47 [24-11-16] ⑤ 칸트: 국제 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48 [25-06-10] ㄷ. 칸트: 강제력을 갖춘 평화 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 )
- 49 [22-09-13] ② 칸트: 국제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 )
- 50 [22-09-13] ③ 칸트: 평화 조약을 통해 모든 전쟁들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 ( )
- 51 [21-09-20] ㄴ. 칸트: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 )
- 52 [23-09-16] ㄱ. 칸트: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목표로 한다. ( )
- 53 [23-11-13] ㄷ. 칸트: 평화 연맹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간 합병은 배제된다. ( )
- 54 [25-11-19] ③ 칸트: 전쟁 상태 극복을 위해서는 주권이 국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 ( )
- 55 [26-06-17] ② 칸트: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 )
- 56 [22-07-18] ㄱ. 칸트: 연맹 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된다. ( )
- 57 [22-03-04] ⑤ 칸트: 평화 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 )
- 58 [24-03-03] ⑤ 칸트: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 )
- 59 [20-07-08] ③ 칸트: 자발적인 합병 절차를 거쳐 범국가적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 )

주권은 한 사회의 주인되는 권리, 즉 결국에는 ‘한 국가를 주인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원래 개별 국가에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사상가는 애초에 교육과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칸트에 따르면 '휴전 조약'과 '평화 조약'은 구분됩니다.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조약은 전쟁을 일시정지시키는 휴전 조약일 뿐, 그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진정한 평화 조약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칸트가 보기에,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조약도 '평화 조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③ 칸트는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예비군까지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예비군, 즉 외부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장 훈련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칸트가 '모든' 군대의 폐지와, 모든 폭력적 수단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칸트는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어떠한 국제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각 국가가 어떤 국제도 일절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3. 칸트의 '예비 조항'

- ①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어떠한 독립 국가도 절대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상비군은 점진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④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내정에 폭력으로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분명한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60 [23-09-16] 르. 칸트 :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 )

61 [24-11-16] ② 칸트 : 국가 간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62 [25-11-19] ④ 칸트 :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가는 어떠한 국제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 )

63 [22-07-18] 르. 칸트 : 비민주적 국가에 대해서는 폭력적 개입이 허용된다. ( )

64 [24-03-03] ③ 칸트 :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 )

65 [19-03-06] ③ 칸트 :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 ( )

66 [23-04-17] ① 칸트 : 상비군의 점진적인 확대는 영구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 )

67 [20-07-18] ④ 칸트 : 각국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국제 연맹의 법질서를 따라야 한다. ( )

68 [20-04-04] ① 칸트 :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 ( )

69 [20-10-12] ① 칸트 : 비민주적 국가에 대해서는 폭력적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 )

70 [20-10-12] ③ 칸트 : 국가는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환될 수 있다. ( )

71 [23-03-13] ① 칸트 : 각 국가는 매매를 통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다. ( )



## \* 해외 원조

### 1. 롤스 VS 싱어

#### — 공통점

- ① 원조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의 문제임
- ② 모든 사람이 원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님
- ③ 국가 간 부의 수준 일치 또는 불평등 해소가 원조의 주 목적이 아님
- ④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는 인류의 보편적 의무임
- ⑤ 원조의 결과로 인류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고 인권이 확립될 수 있음
- ⑥ 원조로 사회 제도가 개선될 수 있고, 사회 제도 개선이 빈곤 완화를 불러올 수 있음
- ⑦ 원조 시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

#### — 차이점

##### ① 원조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 롤스 : 고통받는 사회 내부에 자유, 평등, 인권을 확립하여 그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편입시키고 자립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 싱어 : 빈곤으로 고통받는 개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쾌락은 최대한 늘리고 고통은 최대한 줄이는 것

##### ② 원조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인가?

- 롤스 : 주체는 '질서 정연한 사회',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
- 싱어 : 개인, 국가 등 모든 것이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음

##### ③ 원조의 주된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 롤스 : 주로 경제적이기보다는 사회정치적인 방식(정치문화에 대한 조언 등)
- 싱어 : 주로 빈민들의 빈곤 완화를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의 방식

##### ④ 원조의 차단점이 존재하는가?

- 롤스 :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하는 순간이 원조의 차단점
- 싱어 : 원조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원조의 차단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

##### ⑤ 원조에 있어서 국가 간 경계를 중시해야 하는가?

- 롤스 : 국제주의적 관점(국가 간 경계를 중시함)
- 싱어 :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국가 간 경계를 중시하지 않음)

01 [22-11-19] ①(롤스가 보기에 싱어는)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은 원조 목적에 위배됨을 간과한다. ( )

02 [22-09-08] ㄴ. 싱어 :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 )

03 [22-09-08] ㄷ. 싱어 : 원조는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다. ( )

04 [22-06-12] ㄷ. 롤스 :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하는가? ( )

05 [25-09-19] ㄴ. 싱어 :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 )

06 [20-09-12] ㄱ. 롤스 : 원조는 국가 간 복지 수준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가? ( )

07 [21-11-04] ㄱ. 롤스 : 사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08 [21-06-09] ⑤ 롤스 · 싱어 : 원조 목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 )

09 [25-06-12] ㄱ. 싱어 :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 )

10 [25-06-12] ㄷ. 롤스 :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 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 )

①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이자, 노직과 두 사상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② 롤스에 따르면 애초에 원조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사회, 그것도 질서 정연한 국가들뿐입니다. 싱어에 따르면 애초에 나의 처지가 원조를 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나는 원조 주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롤스와 싱어 모두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며, 원조의 결과로 불평등이 해소될 수는 있어도 불평등 해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④ 롤스의 경우, 절대 빈곤은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인데,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 내의 인권 확립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를 인정합니다. 싱어는 원래 빈민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제적 원조를 주장하고요.

⑦ 롤스는 애초에 상대 국가가 고통받는 사회인지, 그래서 원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어의 경우,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이 부패해서 원조를 해도 그 돈이 빈민에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면 그 국가에 원조를 할 책무가 없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선의 정보를 이용해서 생각할 때, 결국에 가서 극단적인 빈곤을 감소시킬 전망을 갖는 희생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가 우리의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를 원조할 의무는 없다.”

- 11 [25-06-12] ㄹ. 싱어 · 롤스 :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 )
- 12 [20-06-10] ㄹ. 싱어 · 롤스 : 해외 원조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의무가 된다. ( )
- 13 [23-11-18] ㄹ. 롤스 · 싱어 :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
- 14 [23-09-17] ⑤ 롤스 · 싱어 :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 )
- 15 [24-11-19] ㄹ. 롤스 · 싱어 : 원조의 목적은 인류 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니다. ( )
- 16 [24-09-18] ③ 롤스 : 원조의 차단점 설정은 원조 대상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다. ( )
- 17 [23-06-15] ㄱ. 롤스 · 싱어 :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개선이어야 하는가? ( )
- 18 [25-11-14] ㄱ. 싱어 · 롤스 :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 )
- 19 [26-06-15] ㄴ. 롤스 : 원조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 )
- 20 [26-06-15] ㄹ. 롤스 · 싱어 :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 )
- 21 [26-09-20] ㄹ. 롤스 · 싱어 :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 ( )
- 22 [21-03-11] ㄷ. 롤스 · 싱어 :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 23 [24-03-07] ㄴ. 롤스 :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 24 [24-03-07] ㄹ. 싱어 · 롤스 :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 )
- 25 [22-03-13] ㄴ. 싱어 · 롤스 :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
- 26 [22-10-17] ㄴ. 롤스 : 원조의 직접적 목표는 인권 보장과 생활수준 향상이다. ( )
- 27 [23-03-07] ㄴ. 싱어 · 롤스 : 자원 빈곤국을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 )
- 28 [23-03-07] ㄹ. 롤스 :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 )
- 29 [23-10-20] ㄴ. 롤스 :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 향상은 원조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목적일 수는 없다. ( )

## 2.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

롤스는 크게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로 구분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공적 정의관에 의해 사회가 규제되며, 구성원들의 선(善)이 증진되는 사회를 말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①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고 있음
- ② 공적 정의관(정의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가 공적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③ 정의로운 정부가 수립되어 있음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위의 세 가지 특징과는 모두 반대되는 사회, 동시에 독재와 착취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 30 [22-09-08] ㄱ. 롤스 :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 )
- 31 [25-09-19] ㄱ. 롤스 :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32 [21-09-15] ㄷ. 롤스 :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를 확립하는 것인가? ( )
- 33 [23-11-18] ㄱ. 롤스 : 공적 정의관이 규제하지 않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다. ( )
- 34 [23-09-17] ① 롤스 :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해야 한다. ( )
- 35 [24-11-19] ㄱ. 롤스 :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다. ( )
- 36 [25-11-14] ㄹ. 롤스 :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 )
- 37 [20-10-17] ㄱ. 롤스 : 원조 대상에서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사회는 제외된다. ( )

## 심화 롤스의 ‘사회 분류’

- ① **질서 정연한 사회** [ 자유주의적 정부  
적정 수준의 사회

- ②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 **고통받는 사회**  
**무법 국가**

- 적정 수준의 사회도 질서 정연한 사회이므로,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주의적 정부까지 되지는 못했더라도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된 후에는 즉시 원조가 중단되어야 함**
- **고통받는 사회와 달리 무법 국가는 ‘공격성’과 ‘팽창성’을 띠**
-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력 개입(정의 전쟁)의 대상이 됨**

38 [26-06-15] ㄱ. 롤스 :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

39 [26-09-20] ㄴ. 롤스 :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40 [21-03-11] ㄱ. 롤스 : 원조의 목적은 대상국이 자유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 )

41 [23-04-18] ㄱ. 롤스 :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 )

42 [24-07-16] ㄴ. 롤스 : 자유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가 모두 원조 대상은 아니다. ( )

43 [19-10-07] ㄴ. 롤스 : 비인권적이고 공격적인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 )

44 [21-10-18] ③ 롤스 : 원조 대상국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국한된다. ( )

45 [24-04-17] ② 롤스 :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

참고로 우리가 이미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도 롤스의 사회 분류를 공부했었습니다만, 그 분류와 이 분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 파트에 등장하는 사회 분류는 롤스의 『정의론』을 따른 것이고, 해외 원조 파트에 등장하는 사회 분류는 롤스의 『만민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두 책 사이에는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며... 30년이면 강산도 세 번은 변했겠네요!

고통받는 사회와 달리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법 국가는 무력 개입(정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편입시켜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즉 **롤스가 보기에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는 존재해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아예 편입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Step 1 정답표

## 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단원명	정답	단원명	정답
윤리학의 분류	01 ~ 10 :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윤리학 OX 기술 윤리학 XXOOO	동양 윤리	01 ~ 10 : XO 유교 OO XXOOO 11 ~ 20 : XXXOO OXXOX 21 ~ 30 : OO 불교 도가도가 유교도가 유교도가X 31 ~ 40 : OXOXX XXOOO 41 ~ 50 : XXXXX XXOXO
서양 윤리	01 ~ 10 : XO OOO XOXOX 11 ~ 20 : XO OXX 칸트 XOXO 21 ~ 30 : OXXXX OXXX 아리스토텔레스 31 ~ 33 : 매킨타이어 XX		

## 2. 생명과 윤리

단원명	정답	단원명	정답
삶과 죽음의 윤리	01 ~ 10 : OXOXX XOXOX 11 ~ 20 : XO 도가(장자) XO XOXOX 21 ~ 30 : OOXO XXXX 도가(장자) 31 ~ 35 : 도가(장자) O 에피쿠로스 O 에피쿠로스	사랑과 성 윤리	01 ~ 10 : XXXXO XXOOX 11 ~ 20 : OOX 프롬 보부아르 XOX 밀X 21 ~ 30 : OOXO X배려 윤리(나딩스) XOO 31 ~ 40 : OXXXO XOOOX 41 ~ 43 : OXX

3. 사회와 윤리

단원명	정답	단원명	정답
직업 윤리	<div>01 ~ 10: XOOOX XOOOX</div> <div>11 ~ 20: OOOXO O공사 순자 맹자 맹자</div> <div>21 ~ 30: XXX 플라톤 칼뱅 베버</div>	분배 정의	<div>01 ~ 10: XOOXO XXXXX</div> <div>11 ~ 20: OOOOO OXOOO</div> <div>21 ~ 30: OOOOO OXXOX</div> <div>31 ~ 40: OXOXO XXOOO</div> <div>41 ~ 50: OOXOO OOOOO</div> <div>51 ~ 60: XXOOO XOOOO</div> <div>61 ~ 70: XOXOO XXOOX</div> <div>71 ~ 80: XOOOX XOOOX</div> <div>81 ~ 90: XOOOX XXOOX</div> <div>91 ~ 96: XXOXX O</div>
형벌	<div>01 ~ 10: OXOXO XXXXO</div> <div>11 ~ 20: XXOOO OXOXX</div> <div>21 ~ 30: XXXXX XXXOX</div> <div>31 ~ 40: XOOOO 칸트 OOXX</div> <div>41 ~ 50: XOOXX XOXOO</div> <div>51 ~ 60: XXOOX OOOXX</div> <div>61 ~ 70: XOXOO XOOXX</div>	국가 윤리	<div>01 ~ 10: XOOXO XXXOX</div> <div>11 ~ 20: OXOOO XOXOX</div> <div>21 ~ 30: OOXOX XXOOO</div> <div>31 ~ 40: XOOXX XXOOX</div> <div>41 ~ 50: XXOXX XOXOX</div> <div>51 ~ 60: XXXXO OOXOO</div> <div>61 ~ 70: OOOXO XOXOX</div> <div>71 ~ 80: OXOXX OXXOX</div> <div>81 ~ 90: XXOXO XO로크로크로크</div> <div>91 ~ 99: XXOOO XXOO</div>
시민 불복종	<div>01 ~ 10: XXOXX OOOOX</div> <div>11 ~ 20: XXXXX XXXOO</div> <div>21 ~ 30: XXOXO OXOX를스</div> <div>31 ~ 40: XXXXX OXOOX</div> <div>41 ~ 50: XXOOX OXXOO</div> <div>51 ~ 60: OOOOX OXOXX</div> <div>61 ~ 70: OXOXO OXOOO</div> <div>71: X</div>		



4. 과학과 윤리

단원명	정답	단원명	정답
과학 기술 윤리	01 ~ 10 : OXOXO OXOXX 11 ~ 20 : OX야스퍼스OX XXOXO 21 ~ 30 : XXOXO OXOXX 31 ~ 38 : XXXXO XXO	자연과 윤리	01 ~ 10 : XOOOO XOXOO 11 ~ 20 : OXXOO OXXXO 21 ~ 30 : OXOXX XXOXO 31 ~ 40 : OOXOX OXOXO 41 ~ 50 : OOOXX OOOOO 51 ~ 60 : XOOOX OOXOO 61 ~ 69 : OXOXX OOOX

5. 문화와 윤리

단원명	정답	단원명	정답
예술 윤리	01 ~ 10 : 플라톤 플라톤 톨스토이 칸트X XOOOO 11 ~ 20 : OXXXO 목자 목자OXO 21 ~ 30 : XOO 유교 사상O O순자 공자 순자 순자	종교 윤리	01 ~ 10 : 엘리야데XXOO XXOOX 11 ~ 15 : XOXOX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단원명	정답	단원명	정답
담론 윤리	01 ~ 10 : XXXXX OXXXX 11 ~ 20 : XXXX OX하버마스XX 21 ~ 22 : O 하버마스	평화 윤리	01 ~ 10 :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현실주의 XXXXX 11 ~ 20 : OXXOO XOXOX 21 ~ 30 : XXOXO OXOOX 31 ~ 40 : XOOOO OXXXX 41 ~ 50 : XXXOO XOXXX 51 ~ 60 : XOOXO OXXXX 61 ~ 70 : OXXXX XOXXX 71 : X
해외 원조	01 ~ 10 : XOXOO XOXXX 11 ~ 20 : OOOOO XXOOO 21 ~ 30 : OOOOO XOOOO 31 ~ 40 : OOXOX XOOXO 41 ~ 45 : XOOOX		